「보험동향」 2003년 가을호 통권 제27호 2003년 10월 1일 발행 등록 1997년 7월 15일(바-2873)

통권 제27호
2003년 가을호

보 험 동 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보험수요의 구조적 변화와 최근 보험수요 부진
개발이익보호제도의 현황 및 향후 운용방향

◆ 보험환경 및 총괄

◆ 보험지표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금융법체제 개편 추진 및 파급효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보험상품판매동향

◆ 해외보험동향

미국, 연금 과세공평성과 규제적절성 문제
미국, 보험산업 현안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캐나다, CI보험 판매동향
EU, 금융시장통합 관련 법률환경변화
영국, 강화된 지급여력제도 및 개별자본적정성제도
일본, FY2002 보험산업 실적 분석
일본, 생명보험 예정이율 인하제도 도입과 영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 보험수요의 구조적 변화와 최근 보험수요 부진*

이 태 열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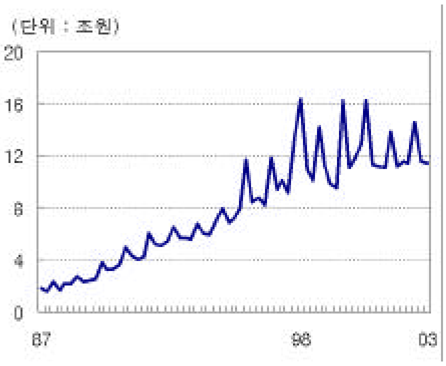
1. 수입보험료 추이와 특징

생손보 수요는 모두 외환위기와 함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형태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분기별 지표 추이**(FY1986 4/4 FY2003 1/4)**에서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o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성장추세가 크게 약화되고 계절적인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그림 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본 논문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개인견해임을 밝힘.

-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생보 수입보험료 추이의 구조적 변화는 주로 단체보험에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단체보험에는 퇴직·종신보험과 같은 비보험적인 성격의 상품과 기업이 종업원 복지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 성격의 상품이 혼재되어 있으나, 양자 모두 외환위기 이후 수보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생보시장의 구조적 정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o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외환위기와 함께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한 후 다시 견조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 경제규모와 보험수요 사이의 구조적 변화

> **경상GDP와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생명보험 내수는 경제 규모와의 상관관계가 거의 소진되었고 손해보험도 상당부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경상GDP를 설명변수로 하고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변화를 감안하여 보험료에 대해 회귀분석함으로써 경제규모와 보험료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코자 함.

o 추정기간은 FY1987 4/4분기부터 FY2003 1/4까지이며 모든 변수는 X-12에 의해 계절조정을 한 후 로그(log)로 치환한 값을 분석에 사용함.

o 보험사의 보험료가 경상가격인 만큼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GDP도 경상가격 기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

o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변화를 감안하기 위해서 FY1998 3/4분기 이후 1, 이전에 대해 0을 설정한 더미A를 더미변수로 사용함.

- 더미B는 FY1997 4/4분기 생명보험 고금리상품의 단기 수신 급증을 반영하기 위해 한분기에 한해 설정함.

o 오차항의 자기 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ochran-Orcutt 방법을 사용함.

o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방정식** :

$$\log(\text{생보 수입보험료}_t) = \alpha_0 + \alpha_1 \text{더미}A + \alpha_2 \log(\text{경상}GDP_t) + \alpha_3(\log(\text{경상}GDP_t) \times \text{더미}A) + \alpha_4 \text{더미}B + \varepsilon_t, \quad \varepsilon_t = \gamma_1 \varepsilon_{t-1} + e_t.$$

o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방정식** :

$$\log(\text{손보 수입보험료}_t) = \beta_0 + \beta_1 \text{더미}A + \beta_2 \log(\text{경상}GDP_t) + \beta_3(\log(\text{경상}GDP_t) \times \text{더미}A) + \delta_t, \quad \delta_t = \theta \delta_{t-1} + \eta_t.$$

o **두 방정식 모두 통계적 성질이나 정합성 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회귀 분석 결과(방정식)

종속변수	설명변수	계수값	표준편차	t-값	기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상수	2.049	0.493	4.157	R^2 : 0.991 D-W : 2.235
	더미A	11.958	2.719	4.399	
	경상GDP	1.214	0.045	27.190	
	경상GDP×더미A	-1.018	0.231	-4.402	
	더미B	0.482	0.063	7.624	
	Cochran Orcutt	0.513	0.107	4.815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상수	2.345	0.540	4.339	R^2 : 0.993 D-W : 2.306
	더미A	7.109	3.027	2.348	
	경상GDP	1.695	0.049	34.745	
	경상GDP×더미A	-0.617	0.258	-2.392	
	Cochran Orcutt	0.490	0.081	6.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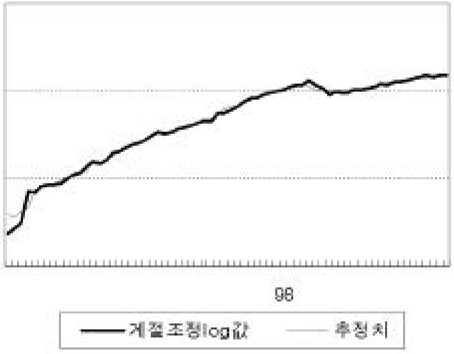
□ **보험료의 경상**GDP**에 대한 탄성치를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생명보험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손해보험도 상당히 약화되었음**.

o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상**GDP**에 대한 탄성치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1.214**로 상당히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0.196 (=1.214 - 1.016)**로 크게 감소하여 사실상 경제규모와 상관관계가 사실상 소멸됨**.

- FY1986 FY1998 **사이에 연평균** 24.4% **증가했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FY1998 FY2002 **사이에는 연평균** 1.2%**로 크게 둔화됨**.

<그림 3> 회귀 분석 결과(생보)

<그림 4> 회귀 분석 결과(손보)



o **손해보험의 경우 경상**GDP**에 대한 탄성치가** 1.695**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1.078(= 1.695 - 0.617)**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FY1986 FY1998 **사이에 연평균** 22.9% **증가했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FY1998 FY2002 **사이 연평균** 9.6%**로 성장세가 둔화됨**.

3. 생손보 수요구조의 변화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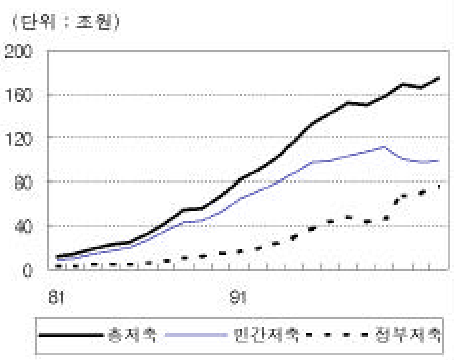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 생/손보 수요의 구조변화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생명보험의 경우 민간부분의 저축 여력 그리고 손해보험의 경우 투자, 교역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관련이 깊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생보의 수입보험료는 민간의 저축과 손보의 원수보험료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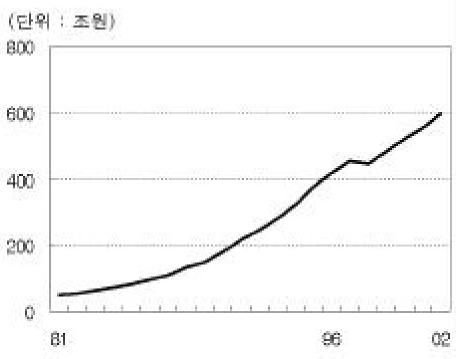
o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정체현상은** <그림 5>**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간저축의 둔화현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됨**.

- **민간저축규모(경상)는** '97**년** 98.1**조 규모에 달한 이후 사실상 횡보하여** '02**년에도 거의 동일한 수준을 기록함**.

<그림 5> 저축 규모 추이



<그림 6> 경상GDP 추이



- 민간부분의 이러한 저축 둔화는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소비 중심의 경제 성장으로 저축 성향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민연금을 포괄하고 있는 정부저축의 꾸준한 증가가 민간 저축을 대체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판단됨.

o 손해보험의 경우 투자규모, 교역량, 자동차 보유대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에서 수요가 창출되는 만큼 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추이는 외환위기 이후에도 경제규모(경상GDP)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4. 최근 보험수요 부진의 심각성 진단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부진은 이미 성장 여력이 크게 약화된 보험수요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FY2002 5.5% 증가했던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FY2003 1/4분기 0.04% 성장으로 급속히 둔화되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1.4% 감소하여 수요 위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FY2003 1/4분기에 이미 -1.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생보 수입보험료의 감소현상이 향후 더욱 심화될 경우 외환위기 때의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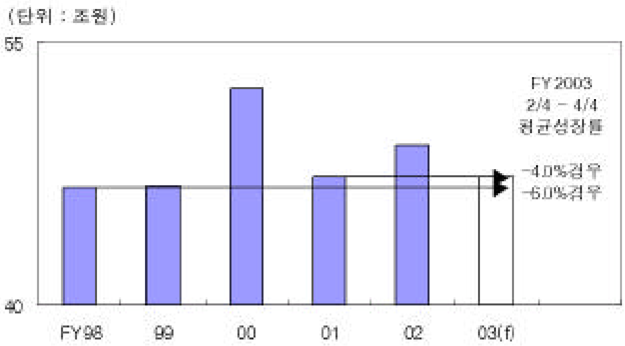
o 생명보험의 수입수수료는 구조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만큼 호경기에는 (+)성장을 하고 불경기에는 (-)성장을 하는 움직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o FY2002 3.6% 증가했던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FY2003 1/4분기 이미 전년동기 대비 -1.4%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최근 내수 부진을 고려했을 때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판단됨.

- FY2003 2/4 4/4분기 중 생보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평균 -4.0%의 경우 FY2003 수입보험료 규모는 47조 4천억으로 감소하여 01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임.

- FY2003 2/4 4/4분기 중 생보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평균 -6.0%이하일 경우 46조 7천억보다 밑돌게 되어 외환위기때인 98년 수준보다 하락할 것임.

<그림 7>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 추이



□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내수경기 부진 지속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o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외환위기와 함께 FY1998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후 FY1999년 7.6%로 반등하고 이후 평균 10%를 상회하여 왔으나 FY2003 1/4분기 3.4%로 크게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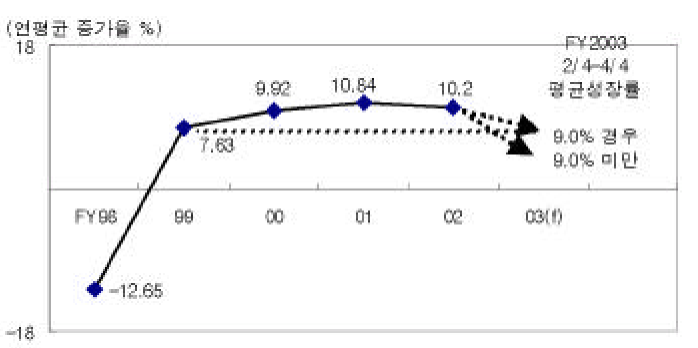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의 감소(-2.0%)가 손해보험 내수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내수 부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둔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o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FY2003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FY1999의 7.63%보다도 낮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FY2003 2/4 4/4분기 중 손보원수보험료의 평균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9%가 되어야 FY2003년 원수보험료 연평균 증가율은 FY1999년의 7.6%에 이를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함.

o 손해보험의 경우 원화 강세에 따른 교역량 둔화와 외환표시계약의 보험료 수입 감소 그리고 자동차 수요 부진에 따른 등록대수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그림 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율 추이



5. 보험수요 부진에 대한 대응

□ 성장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보험수요 위축과 어 저금리 지속이 예상되는 만큼 보험사들은 이러한 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임.

o 종신보험, 장기상해보험 등 이미 침체상태에 진입하고 있는 상품에서 차별화된 시장의 개척을 통해 신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여야 할 것임.

- 공적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다양한 민영건강보험, 투자형 보험상품, 기업연금 상품의 개발 등이 신 수요의 개척 방향이 될 것임.

o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역마진이 우려되는 등 투자 및 영업이익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다양한 수익원 창출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사업비 절감을 통해 은행, 공제 등과의 비용경쟁력을 제고하고, 신탁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척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등을 통해 수익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o 최근 도입된 방카슈랑스의 경우 기존의 보험수요를 대체하기보다는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모집인을 중심으로 한 기존 판매 채널의 붕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임.

- 은행의 보험사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요구하여 수익과 정보는 은행이 갖고 위험은 보험사가 떠맡아 향후 경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 개발이익보호제도의 현황 및 향후 운용방향*

제 종 옥
보험개발원 생명보험본부 선임담당역

1. 도입배경

> 보험사간 경쟁심화 등으로 타사가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신상품을 모방하여 유사상품을 시판하는 사례가 일반화됨에 따라, 선발이익 보호를 통한 신상품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보호제도가 도입 되었음.

□ 생명보험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1993년까지 재경부장관이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독점적 판매권을 인정하였음.

o 1993년 하반기 이후 상품관리규정에 의하여 상품은행제도[1])가 운용됨에 따라 독점적 판매권이 폐지되고, 공동상품의 형태로 신상품 개발이 이루어짐.

□ 외국의 경우 국내와 같은 협정서를 통한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는 제도는 없으나, 신상품 개발에 대한 철저한 정보보완관리를 통하여 타사에서 모방상품의 개발이 용이치 않음.

□ 국내의 경우 금융시장개방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가격자유화 관련제도는 정비되었으나, 신상품 개발 측면의 경쟁력이 취약함에 따라 신상품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o 특히, 국내 보험시장의 경우 신상품개발에 대한 인식결여로 개발이익의 침해사례가 많음에 따라 자율협정 형태로 침해 사례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함.

o 또한 상품은행제도를 이용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신상품을 타보험사

* 본 논문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개인견해임을 밝힘.
1) 보험사별 동일한 상품개발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보험사의 기개발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93년에 도입되어 2000년까지 운용됨.

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선발이익(first-mover advantages)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미흡으로 신상품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2002년 12월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 신상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현재 운용 중에 있음.

2. 운용현황

2002년부터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보호에 관한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2003년 9월 현재까지 5건의 신상품만이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는 등 현재까지는 본제도가 신상품개발 유인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 생명보험사는 보험회사 자율결의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는 게임의 룰(rule)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에 본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음.

□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는 신상품은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함.

- o 담보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 없는 새로운 상품으로 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
- o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에 없는 새로운 상품
- o 기타 기존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비추어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가 필요한 상품

□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는 신상품이 보고상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의 요율확인후, 신고상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수리후 배타적 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하고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게 됨.

- o 신상품심의위원회는 7인[2)]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신청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됨.

o 현재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발생일 이후 3월 이내로 되어 있으며, 3개월 이후에 자동적으로 소멸됨.

□ 현재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은 7건이었으며, 이중 5건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되었음.

o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00건의 신상품 및 변경상품중 5건(개발상품 대비 0.25%)만이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어 여전히 기존상품의 변경 중심으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신상품중 피보험자의 확대, 연금수령방법에 대한 계약자 선택권 확대, 사망보험금의 선지급형태 등 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신상품을 중심으로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되었음.

<표 1>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된 상품

신청상품	신청사	내용	사용기간
(무)패밀리 어카운트보험	교보생명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적립(Account)하고, 가입후 보험료의 변경없이 자유롭게 보장내용을 변경설계하는 보험상품	2002.7.30 2002.10.29
(무)삼성리빙케어 보험	삼성생명	중대질병 발병시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리빙케어보험금으로 선지급하는 보험상품	2002.6.7 2002.9.6
(무)PCA플래티넘 연금보험	PCA생명	적립기간동안의 자유로운 입/출금과 연금수령시 연금수령방법, 연금수령기간, 연금수령액을 고객이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신개념의 자산관리 연금보험상품	2003.6.11 2003.9.10
(무)교보다사랑 종신보험	교보생명	기존의 연생개념인 배우자, 자녀등을 사업파트너까지 확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우발적인 경제적 손실까지 보상하는 연생종신보험	2003.8.19 2002.11.18
(무)메디컬 종신의료보험	흥국생명	가입시부터 종신까지 발생하는 의료비(수술급여금과 입원급여금)를 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는 보험	2003.9.24 ~ 2003.12.23

2) 현재 신상품심의위원은 보험사의 상품개발담당 임원, 대표계리인 3인과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및 보험개발원 상품담당 임원으로 구성됨.

□ 최근 기존상품과 차별화된 신상품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3건의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 신청되는 등 배타적 신상품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음.

o 일부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시장 선점효과는 물론 회사 이미지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신상품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3. 향후 운용방향

배타적 사용권의 활발한 이용과 신상품개발의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배타적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유사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향에서 현행 배타적 사용권 인정제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최근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판매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의 개발, 판매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보험관련 규제의 완화로 자유로운 상품개발의 제도적 여건이 마련됨.

o 변경 보험관련 법규에 따르면 보험사는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게 신상품을 개발하여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인가제 시행시보다 신상품 개발의 증가가 예상됨.

□ 향후 대형사 및 외국사를 중심으로 틈새시장의 개척 및 신판매채널 확보를 위하여 배타적 사용권의 활발한 이용이 예상됨.

o 반면, 시장인지도가 낮은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시장 선점효과보다는 회사의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배타적 사용권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인터넷금융의 확산, 방카슈랑스 허용 등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금융공학(Financial engineering)의 발달로 신상품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o 새로운 금리형태의 도입 등 단순 급부변경 중심의 상품개발이 기초율 중심의 상품개발로 전환됨에 따라 신상품개발의 증가

o 인터넷, 은행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채널에 적합한 신상품개발의 증가

o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로 인한 맞춤형 상품의 증가

□ 신상품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나 현재 3개월 이내의 배타적 사용권만 인정되고 있으므로 배타적 사용기간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함.

o 보험상품의 경우 상품개발 후 판매준비가 완료된 후에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인 배타적 사용기간은 2개월 정도에 불과함.

□ 현재 배타적 사용권의 신청은 신상품 개발사가 보험개발원의 요율확인 또는 금감원의 신고 수리후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는 개발 후 즉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존 개발상품과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상품심의위원회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o 타금융상품과는 달리 보험상품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개발상품에 대한 조사 중요성이 높음.

□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신상품에 대한 개발이익을 확대하고 기존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 절차 개선 등 신상품개발이익보호 제도를 재정비하여 신상품개발 유인 제도로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

보험환경 및 총괄

1. 해외경제

>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경기 하락세가 약화되거나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

□ 최근 미국 경제는 실물 부문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미국은 2/4분기부터 생산, 소비 관련 지표들의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GDP성장률도 전분기 1.4%에서 3.1%로 크게 상승하였음.

-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5월 이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ISM제조업지수도 7월이후 기준치인 50을 상회함.

- 반면, 이러한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4월이후 6%대를 지속하고 있어 내수 회복의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중국이 고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장기 불황을 지속하던 일본 경제가 소폭의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 경제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조를 보이고 있음.

<표 1> 주요지역 성장률 추이

(전기대비 연율 %)

	2001 연간	2002 연간	2003 1/4	2003 2/4
미 국	0.3	2.4	1.4	3.1
독 일	0.6	0.2	-0.2	-0.1
일 본	0.4	0.2	0.3	0.6
중 국	7.3	8.0	9.9	6.7

주 :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 미국의 생산과 실업률 추이

o 반면, 독일을 비롯한 EU경제는 경기 하락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평가되나 전체적으로 저성장 고실업의 불황 국면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실업률의 경우 03년 8월 독일 10.6, 프랑스 9.6, 유로권 전체 8.9%를 기록함.

□ 엔화는 미국으로부터의 환율 절상압력으로 크게 절상되었으며 지속적인 절상기조를 유지해왔던 유로화는 하반기들어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o 엔화는 장기 불황으로부터의 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해외 투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03년 하반기이후 강세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9월들어서는 미국의 압력까지 가세하여 큰 폭 절상되면서 달러당 110엔을 위협하고 있음.

o '02년 미국경제의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절상된 유로화는 '03년 6월이후 미국경제의 회복조짐과 함께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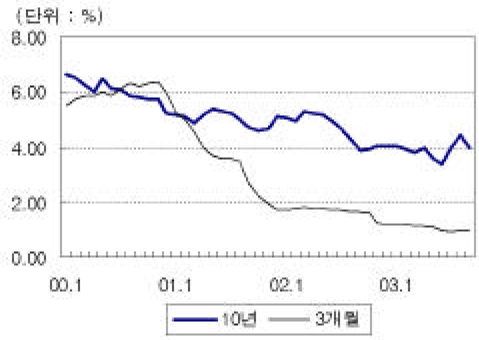
o 경기 부양을 위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저금리 기조 유지로 단기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장기금리가 '03년 하반기들어 반등함.

o '03년 9월에는 고용지표 부진 등 미국 경제회복의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유로환율 및 장기금리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 국제환율 추이

주 : 뉴욕시장 종가기준 (월말)
9월은 26일지표 사용, 편의상
유로/ 달러 사용

<그림 3> 미국 국채 금리 추이



주 : 9월은 26일 지표 사용
자료 : FRB St. Luise

2. 국내경제

수출의 꾸준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불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가 저점에 이르렀다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음.

□ 수출과 건설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03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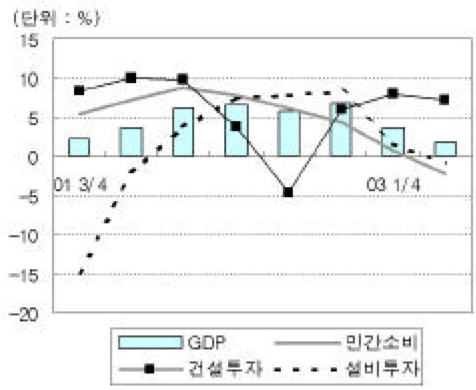
o '03년 2/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 대비 -2.2%, 설비투자는 -0.8%를 기록하면서 전체 GDP 성장률도 1/4분기 3.7%에서 2/4분기 1.9%로 크게 악화됨.

- 신용불량 해소 지연, 노사 불안, 북핵 문제, 이라크 문제 해결 지연 등 다양한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비 및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이 내수 불황의 근본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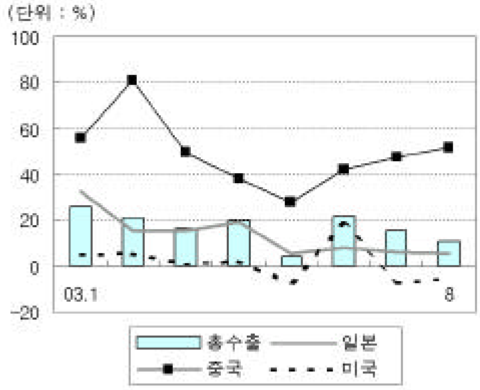
o 건설은 부동산 경기 활황에 따른 기수주물량의 착공과 최근 도입된 주택관련 규제 강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주확대 등에 따라 전반적인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음.

o 수출의 호조는 우리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음.

<그림 4> 부문별 성장률 추이



<그림 5>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



o '03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 흐름은 내수 회복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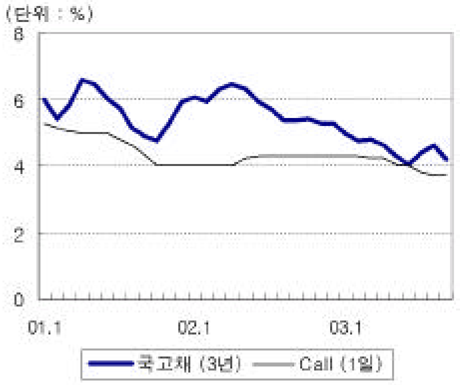
□ 금리의 경우 미국 시장과 유사한 장기 금리 소폭 상승 후 혼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환율은 하반기들어 엔화와 동반하여 강세기조를 이어가다 최근 큰 폭 절상됨.

o 금리는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당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에도 불구하고 하고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장기금리가 하반기들어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경기 불투명성 확대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음.

o 원/달러 환율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해외투자자금 유입과 이에 따른 엔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달러대비 완만한 강세를 보이나 9월들어 엔/달러 급락의 영향으로 큰 폭 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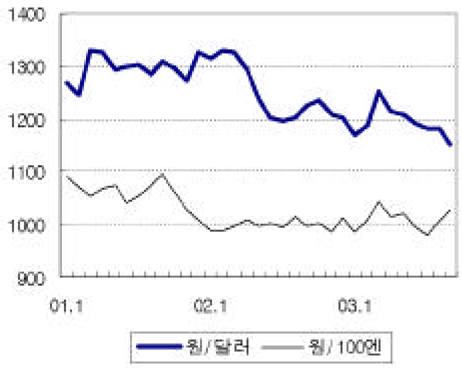
o 금리, 환율, 주가 등 주요 금융변수들이 해외 시장과 크게 연동되고 있어서 향후 금융시장의 동향은 국내 경제의 내수 부문 회복 여부와 더불어 국제 금융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



주 : 9월은 26일자 지표
자료 : 한국은행

<그림 7> 원화 환율 추이



주 : 9월은 26일자 지표
자료 : 한국은행

3. 보험환경

내수 불황의 특징을 반영하여 가계 경제, 기업 활동 등 보험수요 관련 환경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경제에는 저축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대외 부분에 의존했던 기업 활동도 최근 들어 위축되고 있음.**

o **도시가계조사에 따른 근로자가구의 경우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저축증가율도 크게 악화되고 있어 가계의 보험수요 여건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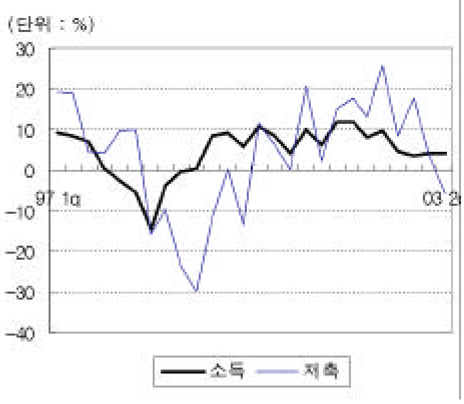
- ′99년 하반기 이후 10% 전후의 수준을 유지했던 도시근로자 가계의 명목 소득 증가율은 ′02년 하반기 이후 5%이하로 하락하였음.

- 이러한 가계 경제 여건의 악화를 반영하여 '01년 하반기이후 꾸준히 소득 증가율을 추월했던 명목 저축(흑자) 증가율은 ′03년 2/4분기 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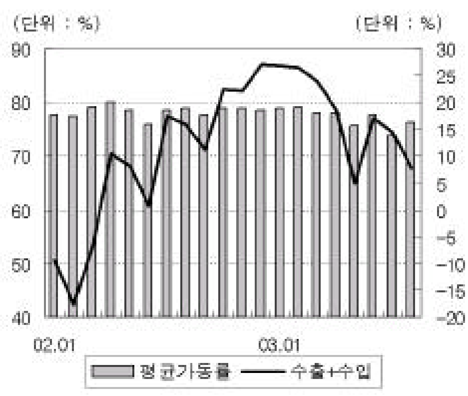
o ′03년 1/4분기까지 대외교역에 의존하여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던 산업활동은 2/4분기 들어 대외 교역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가동률도 70%대 중반 수준으로 저하되어 설비투자 부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음.

- 교역량(수출+수입)증가율은 ′03년 4월이후 10%대로 하락한 이후 둔화되고 있음.

<그림 6> 가계 소득저축 증가율



<그림 7> 교역량증가율/가동률 추이



□ FY03 1/4분기 중 증권, 투신, 은행 신탁계정 등 투자형 금융상품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반면, 보험, 은행 일반계정으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o 보험은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03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조원 수준의 순수신 감소가 나타남.

o 은행은 신탁계정에서의 자금 유출과 일반계정으로의 자금 유입이라는 특징이 지속되고 있음.

o 투신, 증권에서의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주식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객예탁금은 FY02년 4/4분기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보험수요를 위한 가계경제 여건은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여건도 최근 교역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건설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금융기관 자금이동은 신탁 유출, 예금 유입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험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고 있음.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2002				2003	
	1/4	2/4	3/4	4/4	1/4	2/4
보 험	45,044	69,225	68,236	76,573	45,805	50,356
생명보험	45,157	51,503	51,278	62,076	30,629	34,893
손해보험	-113	17,722	16,958	14,497	15,176	15,463
은 행	-15,367	17,944	92,267	138,510	23,484	73,895
일반계정	37,630	24,771	111,084	140,221	45,937	144,380
신탁계정	-52,997	-6,827	-18,817	-1,711	-22,453	-70,485
증 권	21,226	-15,865	-15,666	-2,879	35,535	-2,503
투 신	150,461	-34,535	49,664	-2,159	-80,618	-90,539
종 금	13,173	3,787	-9,672	-2,463	24,512	-61,400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한 금액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4.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3 1/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가계경제 및 산업활동 여건 악화로 보험수요가 크게 둔화, 전년동기 대비 제로성장을 기록함.

□ FY2003 1/4분기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감소와 손해보험의 소폭 증가가 맞물려 16조 5,167억원을 기록, 전년동기의 수준에 그침.

o 생명보험은 가계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른 저축 수요 감소로 저축성보험과 단체보험을 중심으로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함.

- 개인보험의 경우 보장성보험은 증가하였으나 고금리 저축성상품인 생사혼합보험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단체보험의 경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함.

o 손해보험도 전반적인 경기 악화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FY2003년 1/4분기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3.4%의 증가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자동차보험의 부진을 상쇄하고 있음.

<표 3>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 종목	FY2002					FY2003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115,606	113,917	145,448	115,697	490,668	114,004
	3.1	2.5	4.8	3.6	3.6	-1.4
손해보험	49,494	51,409	54,958	50,083	205,944	51,163
	12.2	10.9	10.5	7.4	10.2	3.4
합계	165,100	164,966	200,406	165,782	696,614	165,167
	5.7	4.8	6.3	4.7	5.5	0.04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3 1/4분기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의 경우 생보사 3.1% 손보사 2.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말 대비 2.9% 증가함.

□ FY2003 1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205조 4,220억원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200조원대를 넘었으며 전년말 대비 2.9% 증가함.

o 생명보험 총자산은 169조 2,543억원으로 안정적인 투자이익 확보 등에 기초하여 전년말 대비 3.1% 성장하였음.

o 손해보험 총자산도 원수보험료의 완만한 증가 및 투자수익의 개선으로 전년 말 대비 2.2% 증가한 36조 1,677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함.

<표 4>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종목 \ 연도	FY2002					FY2003
	1/ 4	2/ 4	3/ 4	4/ 4	연간	1/ 4
생명보험	1,485,055	1,537,809	1,632,661	1,642,225	1,642,225	1,692,543
	3.8	3.6	6.1	0.6	14.8	3.1
손해보험	329,844	339,338	352,114	353,683	353,683	361,677
	0.8	2.9	3.8	0.4	8.1	2.2
합계	1,814,899	1,877,147	1,984,775	1,995,908	1,995,908	2,054,220
	3.3	3.4	5.7	0.6	13.6	2.9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이태열 연구위원, 김진억 선임연구원)

보험지표동향

1.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FY2003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은 시장위축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한 11조 4천억원 규모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 규모는 169조 2천억원을 시현하여 전년말 대비 3.1%의 증가함.

□ FY2003 1/4분기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생사혼합보험과 단체보험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1.4% 감소한 11조 4,004억원 수준을 기록함.

o 개인보험의 경우 연금보험 분야의 수요 확대와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보험의 지속적인 확대로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한 10조 3,895억원을 시현함.

<표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연간	1/4
총 자 산	1,485,055	1,537,809	1,632,661	1,642,225	1,642,225	1,692,543
	3.8	3.6	6.1	0.6	14.8	3.1
수입보험료	115,606	113,917	145,448	115,697	490,668	114,004
	3.1	2.5	4.8	3.6	3.6	-1.4

주 : 1)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의 비율은 전분기(총자산)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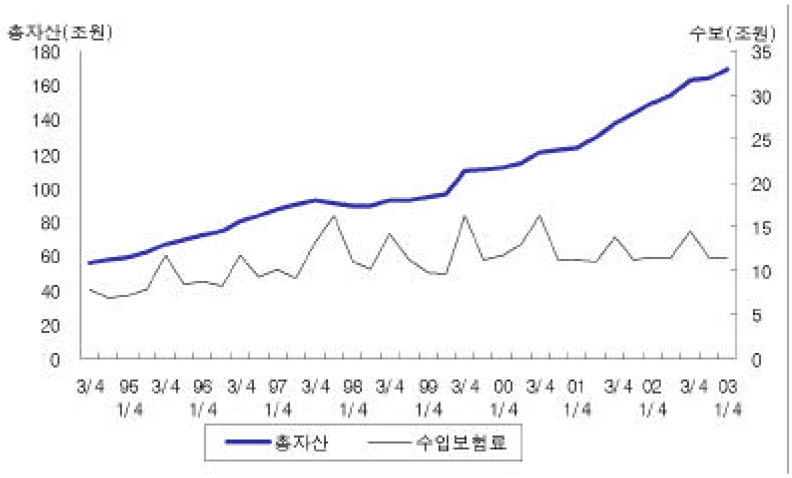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o 단체보험의 경우 경기침체의 지속이 일반단체보험 및 퇴직보험의 수요에 영향을 미쳐 전년동기 대비 37.3% 감소한 1조 108억원을 시현함.

□ FY2003 6월말 총자산 규모는 169조 2,543억원으로 수입보험료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말 대비 3.1%의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함.

o 보유계약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른 계속보험료의 증가 및 준비금 규모의 증가,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의한 투자이익 확대 등이 총자산의 견실한 성장을 이끈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변동추이



□ FY2003 1/4분기 개인보험의 종목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한 10조 3천억원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전년도의 10%대 성장세에 미치지 못함.

o 개인보험의 성장을 주도하는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의 계속보험료의 수입 증대로 전년동기 대비 11.2% 증가하여 5조 6,036억원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3년 6월말 현재 종신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전분기 대비 2.6%의 증가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종신보험을 제외한 일반 보장성보험의 경우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생존보험은 생보사의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중 축소전략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최근 공적연금제도 불안에 따른 개인연금의 증가와 변액연금 등 다양한 상품개발 및 적극적 판매전략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연금의 경우 2002년 12월 이후 비교공시제도를 통한 금융기관별 수익률 등의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신규계약 및 초회보험료가 증가하였음(전년동기 대비 각각 47.6% 51.7% 증가).

<표 2>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21,382	22,121	23,611	24,311	91,424	24,394
	성장률	19.7	23.5	25.9	19.0	22.0	14.1
	구성비	18.5	19.4	16.2	21.0	18.6	21.4
사망	보험료	50,313	52,829	54,866	55,814	213,677	56,036
	성장률	30.9	22.5	21.2	17.2	22.6	11.2
	구성비	43.6	46.4	37.6	48.2	43.5	49.2
생사혼합	보험료	27,687	26,869	28,877	26,959	110,392	23,465
	성장률	-16.5	-16.5	-12.4	-10.7	-14.1	-15.2
	구성비	23.9	23.6	19.9	23.3	22.5	20.6
개인계	보험료	99,382	101,818	107,116	107,084	415,493	103,895
	성장률	11.0	9.2	10.6	9.0	10.0	4.4
	구성비	86.0	89.4	73.6	92.6	84.7	91.1
단체	보험료	16,131	12,098	38,332	8,613	75,175	10,108
	성장률	-28.5	-32.5	-8.6	-35.9	-21.6	-37.3
	구성비	14.0	10.6	26.4	7.5	15.3	8.9
합계	보험료	115,606	113,917	145,448	115,697	490,668	114,004
	성장률	3.1	2.5	4.8	3.6	3.6	-1.4

주 : 1) FY1999년부터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이며, FY2001 2/4분기부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o 단기 저축성보험이 대부분인 생사혼합보험은 외환위기 이후 판매된 5년만기 고금리저축성 상품의 만기도래 및 저축성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판매 축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5.2% 감소함.

□ FY2001 이후 성장을 지속한 종신보험은 수입보험료 규모가 FY2003 1/4분기 현재 2조 48백억원 이르고 있으며, 개인보험 및 보장성보험에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3.6%, 44.3%를 차지하여 단일 보험종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함.

o 그러나, 2003년 6월말 현재 종신보험 보유계약 건수가 630만건에 이르러, *가구수 대비 가입율이 43%를 넘어서는 등 종신보험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최근 CI(치명적질병)보험등에 대한 보험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일부 생보사의 경우 CI보험이 종신보험의 판매실적을 상회하는 등 CI보험이 개인보험시장에서 급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전체 생보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2003년 9월말 현재 삼성, 교보, 대한,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신한, SK생명등 7개사가 판매하고 있음).

* 통계청이 2002년 7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현재 1,461만 가구임.

** FY2003 종신보험 1/4분기 신계약 건수 전년동기 대비 17.9% 감소

□ 저금리기조의 지속으로 소비자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면서 보험시장에서도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이 각각 도입되어 투자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주식시장 개선 여부에 따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o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2003년 6월말 현재 427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동월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보다 35배정도 많은 실적이며, 2002년 10월 이후 판매된 변액연금도 6월말까지 493억원의 실적을 기록함

□ 단체보험 실적이 감소세를 보인 원인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기업의 보험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신규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o 퇴직보험은 기업의 퇴직금 중간정산 확대와 종퇴보험의 퇴직보험 전환계약 소진으로 인하여 신규계약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퇴직보험의 경우 종퇴보험과 달리 대량의 해약과 신규계약이 높지 않은 특징이 있음.

o 일반단체보험은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주력상품인 금융형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단체보험시장의 정체를 주도하였음.

- 이에 따라 퇴직보험과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각각 23.7% 감소, 50.0%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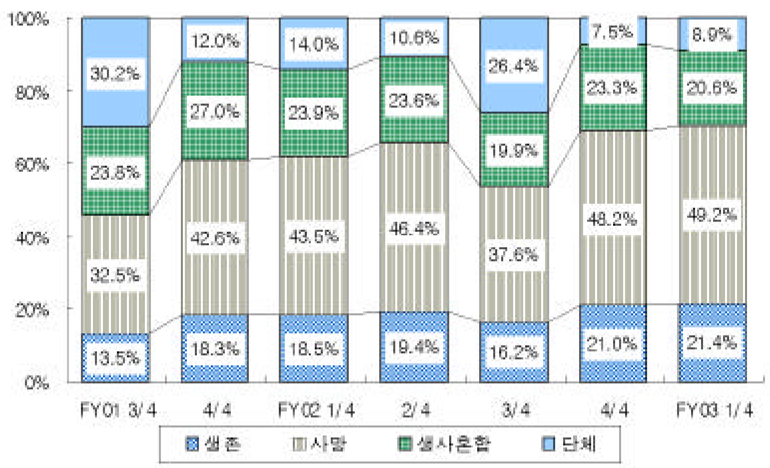
□ FY2003 1/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사망보험이 4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생존보험 21.4%, 생사혼합보험 20.6%, 단체보험 8.9% 순인 것으로 나타남.

o 보험종목별 구성비의 특징은 첫째, 고금리저축성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판매 축소 및 만기도래의 영향으로 FY2000 이후 3년만에 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이 생존보험의 비중을 하회하여 보험종목별 구성비의 순서에 변화가 발생함.

o 다음으로 개인보험의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반면, 단체보험이 FY2002 4/4분기 이후 10%대 이하의 점유율을 지속함.

- 보장성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49.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84.2%를 차지하는 등 생보사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대부분이 보장성보험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3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상위 3사를 비롯한 국내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o 상위 3사의 경우 외형적인 성장에서 내실위주의 경영전환에 따른 상품판매 강화와 판매조직의 전문화 및 슬림화 등으로 FY2001 이후 과점형 시장구조가 개선되는 가운데 1/4분기 현재 74.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o 반면, 외국사의 경우 외국 대형사에 대한 인지도를 배경으로 고학력 남성 전문설계사를 중심으로 영업조직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감한 확충, 교육 및 보수체계의 혁신 등을 통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처음으로 12%를 상회함.

<표 3>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연간	1/4
상위 3개사	77.0	75.4	76.3	74.5	75.8	74.2
상위 9개사	92.9	92.3	92.1	91.8	92.3	91.4
외 국 사	10.0	10.7	9.4	12.0	10.5	12.5
국내중소형사	13.0	13.9	14.2	13.6	13.7	13.3
허핀달지수	0.2373	0.2267	0.2254	0.2201	0.2271	0.2157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3년 3월말 알리안츠, 푸르덴셜, ING, 라이나, AIG, 메트라이프, 하나, 뉴욕, PCA, 카디프 등 10사(하나, ING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임.
4) 국내중소형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사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수지상황

FY2003 1/4분기 당기손익은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38.3% 감소한 8,086억원을 시현하였음.

☐ 보험수지차는 FY2001 이후 매년 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개

인금융자산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실효해약의 증가와 보험금 지급이 확대되어 FY2003 1/4분기에도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o 특히, 외환위기 직후에 대량 판매되었던 5년 만기 고금리저축성 상품에 대한 만기 도래의 영향으로 전체 보험금 지급이 177%로 급증하였으며,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리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동 상품에 대한 해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FY2003 1/4분기 보험수지차는 전년동기 대비 1조 6천억원 정도 감소한 1조 4,946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보험수지차 = 수입보험료－지급보험금－사업비(단, 사업비는 이연신계약비 상각전 실제사업비 기준)

<표 4>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및 사업비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연간	1/4
수입보험료	115,606	113,917	145,448	115,697	490,668	114,004
	3.1	2.5	4.8	3.6	3.6	-1.4
지급보험금	64,103	62,639	82,372	85,068	294,180	79,111
	-33.0	-27.2	-13.5	27.9	-14.4	23.4
사 업 비	19,997	21,029	22,758	21,407	85,196	19,947
	9.1	10.5	12.5	3.8	8.9	-0.3

주 : 1) 특별계정을 포함하였으며, 사업비는 신계약비 상각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임.
2) 하단의 비율은 증감률로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보험영업이익 감소에 의한 수지악화의 영향으로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o 순이익 규모가 축소된 원인은 전체 22개 생보사중 12개사의 순이익 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줄었는데 특히, 삼성생명 등 순이익 규모의 기여도가 높은 일부 생보사의 흑자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o 또한, FY2001 이후 대량으로 판매된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 부담이 늘어난 것도 이익을 감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o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조 1,505억원이 감소한 1조 8,453억원으로 나타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절반 수준임.

<표 5> 생명보험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1/4
총수익	보험영업	111,615	224,636	341,200	457,713	111,565
	투자영업	27,533	52,974	79,625	105,707	28,480
	기타	5,489	4,895	8,053	8,951	3,572
	계	144,637	282,505	428,878	572,371	143,617
총비용	보험영업	71,657	144,796	237,824	337,132	93,112
	투자영업	3,897	8,862	13,604	23,368	5,001
	기타	8,141	9,907	13,094	15,951	9,188
	계	83,695	163,566	264,522	376,451	107,301
수지차	보험영업	39,958	79,839	103,376	120,581	18,453
	투자영업	23,636	44,112	66,021	82,339	23,479
	기타	-2,652	-5,012	-5,041	-7,000	-5,616
	계	60,942	118,939	164,356	195,920	36,316
준비금전입		45,595	92,719	126,316	160,325	28,134
법 인 세		-	-	-	7,275	96
당기순이익		15,348	26,221	38,039	28,320	8,086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o 지난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하나 향후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투자수지 악화 및 종신보험의 급속한 증가세 둔화, 종신보험 판매에 따른 3차년 이후의 책임준비금 적립 문제를 감안하여 손익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FY2003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에 비해 흑자규모가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적자를 기록한 회사가 전년도와 동일한 6개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전체의 지급여력비율은 260.6% 수준으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향후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주식시장 침체 등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 가능성, 보유계약의 감소, 생보사 지급여력비율의 소정비율 상향조정(2003년 6월말 75%→ 9월말 87.5%) 등으로 일부 중소형 생보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2002년 3월 지급여력비율의 소정비율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되면서 일부 생보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소정비율이 12.5% 상승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통상 20% 이상 하락한 과거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재무건전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생보사 평균 지급여력비율 추이 : 286.1%(FY2001) →305%(FY2002 1/4분기) → 281%(2/4분기) → 303.8%(3/4분기) → 225.9%(FY2002) →260.6%(FY2003 1/4분기)

다. 자산운용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한 169조 2,543억원이고,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현·예금 순으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었으며, 채권중심의 투자유가증권 보유비중의 확대가 지속됨.

□ FY2002말 생명보험회사들의 총자산은 164조 2,225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함.

o 보험사 그룹별 자산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사의 경우 8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중소형사는 12.0, 외국사 7.6%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총자산의 51.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출채권 28.6%, 부동산 5.7%, 현·예금 2.1%의 구성을 보이고 있음.

o 유가증권의 항목별 구성비는 채권 등의 비중이 43.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익증권과 주식의 비중이 동일(4.2%)한 수준임.

o 주식시장의 상승 등 투자여건의 호조에 따라 주식 보유비중이 전분기 대비 0.6%p

증가하였으나, 국·공채 등 안정적인 투자자산인 채권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신용리스크 증대의 영향으로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분기 대비 0.4%p 감소함.

o 1/4분기에 퇴직보험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특별계정자산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총자산 대비 비중은 7.8%로 전분기 대비 0.2%p 감소하였음.

<표 6> 생명보험회사 자산구성 및 투자수익률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1/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예금 및 예치금	1.9	7.5	1.9	6.2	2.3	5.1	2.1	5.3	2.1	4.1
유가증권	49.7	9.1	49.9	8.4	51.1	8.0	50.8	10.8	51.2	7.7
○ 상품유가증권	5.8	16.6	5.4	11.4	5.5	10.9	4.0	11.3	3.6	20.1
- 주식	0.2	18.8	0.2	14.1	0.2	15.3	0.1	19.4	0.1	115.0
- 채권 등	2.5	34.3	2.4	21.4	2.4	21.6	2.2	25.9	2.4	24.6
- 수익증권	3.0	4.7	2.8	4.5	3.0	3.9	1.7	4.7	1.3	6.7
○ 투자유가증권	44.0	8.1	44.6	8.1	45.6	7.7	46.8	7.8	47.6	6.7
- 주식	4.9	7.4	4.4	5.0	4.2	4.0	3.5	5.2	4.1	2.7
- 채권 등	36.1	8.3	37.6	8.3	38.6	8.0	40.5	11.0	40.7	7.5
- 수익증권	3.0	7.0	2.6	10.2	2.8	7.5	2.8	6.5	2.9	2.1
대출채권	29.7	10.3	29.9	10.4	28.7	10.8	28.8	10.8	28.6	10.1
부동산	6.7	4.7	6.4	3.9	6.1	4.1	6.0	3.6	5.7	3.2
운용자산계	87.9	9.1	88.1	8.7	88.2	8.6	87.8	8.6	87.6	8.1
비운용자산	12.1	-	11.9	-	11.8	-	12.2	-	12.4	-
일반계정자산 계	100.0 (92.6)	8.2	100.0 92.9	7.9	100.0 91.6	7.8	100.0 92.0	7.7	100.0 92.2	7.5
특별계정자산	7.4	-	7.1	-	8.4	-	8.0	-	7.8	-
총자산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 1)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 )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자산별 투자수익률은 각 사 월말보고서 재산이용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일반계정의 총투자수익률 계산에서는 손익계산서 상의 투자수익을 사용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상품유가증권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유 목적의 투자유가증권과 부동산 및 대출채권의 수익률이 악화되면서 일반계정을 기준으로 한 총자산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0.2%p 감소한 7.5%로 나타났음.

o 다만, 주식시장 상승에 따라 상품유가증권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투자비용을 감안한 총자산이익율의 경우 FY2002 6.6%에서 0.2%p 상승한 6.8%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o 2003년도에는 국내경기 침체의 지속 및 환율시장 급변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향후 환율변동에 대비한 안정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경영효율

FY2003 1/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지급보험금 증가로 보험금지급률이 악화된 반면 사업비율은 예년 수준을 보임.

□ FY2003 1/4분기 보험금지급률은 전년 동기 대비 수입보험료의 감소(1.4%)와 지급보험금의 급증(23.4%)으로 14.0%p 상승한 69.4%를 기록함.

o 특히 생사혼합보험은 수입보험료의 감소와 함께 지급보험금의 급증으로 142.1%의 높은 보험금지급률을 보였으며 개인연금과 사망보험도 보험금지급률이 증가해 개인보험 전체 지급률은 16.7%p 상승함.

- 단체보험 또한 저축성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감소가 커 보험금지급률이 35.3%p나 증가했음.

□ FY2003 1/4분기 사업비율은 17.5%로 전년 동기 대비 0.2%p 감소, 전분기에 비해서도 0.1%p의 소폭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사업비감소에 비해 수입보험료감소가 다소 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o 보험종목별로는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의 감소(49.0%)에 불구하고 사업비의 증가(7.1%)로 사업비율이 7.1%p증가했으며, 반면 개인보험은 수입보험료의 소폭 증가(3.6%)와 사업비의 감소(0.5%)로 사업비율은 0.8%p감소함.

- 상품별로는 장기건강보험이 25.0%의 사업비 감소가 있은 반면 질병보험은 4.2%의 사업비 증가가 있었음.

<표 7> 생명보험회사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연간	1/4
보험금지급률	55.4	55.0	56.6	73.5	60.0	69.4
사업비율	17.3	18.5	15.6	18.5	17.4	17.5

주 :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사업비/수입보험료이며, 사업비는 이연신계약비를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임.
2)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요 경영효율지표를 분석한 결과, 1/4분기 해약률은 4.8%로 전년동기 대비 악화되었음.

o 최근 경기침체에 의한 영향으로 해약률은 전년동기 대비 1.1%p 상승하여 4.8%가 되었으며, 1/4분기 실적 FY2000 6.0%, FY2001 4.5%, FY2002 3.7%로 개선되던 추세가 2년전으로 후퇴하였음.

<표 8> 생명보험회사 주요 경영효율 지표

(단위: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1/4
해약률		3.7	7.5	11.2	14.8	4.8
자산운용율		87.9	88.1	88.2	87.8	87.6
투자 수익률	운용자산	9.1	8.7	8.6	8.6	8.1
	총자산	8.2	7.9	7.8	7.7	7.5
계약유지율		-	81.9	-	79.3	-
보험설계사정착률		-	31.2	-	31.2	-

주 : 1) 해약률, 자산운용율 및 투자수익률은 일반계정 기준임.
2) 계약유지율은 13회차, 보험설계사정착률은 13월차 기준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및 「보험사의 경영효율」, 반기별 보도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영업력과 함께 자산운용력을 중시하는 관행의 정착으로 안정적 자산운용을 하여 8% 대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FY2002 대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마. 판매채널

전체적으로 판매채널 효율화 노력이 지속되어 보험설계사와 임직원 수가 감소하고, 대리점 수가 증가했으나 국내사와 외국사의 양상이 갈렸으며, 채널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음.

□ FY2003 1/4분기 초회보험료의 모집형태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전분기 대비 보험설계사, 대리점, 회사직급의 판매비중이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판매채널다각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9>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연간	1/4
회사직급	45.5	50.0	57.1	22.9	46.0	24.2
보험설계사	47.7	41.9	36.7	63.4	45.8	61.1
대 리 점	6.0	6.9	4.9	11.8	7.0	11.6
중개인	-	-	-	-	-	-
T/M	-	-	-	-	-	2.5
C/M	-	-	-	-	-	0.2
기 타	0.8	1.2	1.3	1.9	1.3	0.5
합 계	100.0 12,694	100.0 12,784	100.0 18.346	100.0 10,844	100.0 54,668	100.0 8,824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1999의 경우 특별계정을 제외하고, FY2000부터는 특별계정을 포함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o 전분기 대비 단체보험의 영업부진과 전문보험설계사 조직의 활성화로 회사직급의 판매 비중이 전년 동기 45.5%에서 24.2%로 감소함.

o 보험설계사의 판매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47.7%에서 61.1%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종신보험 중심의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 등의 개인보험의 판매증가, 단체보험의 수요 감소의 요인과 전문보험설계사의 육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FY2003 1/4분기 경영효율성과 판매채널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표 10> 판매채널 규모 및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1/4
임직원	28,136	26,729	26,561	26,726	26,356
보험설계사	168,654	160,324	155,393	151,064	145,613
생산성	-	18,943	-	19,585	-
대리점	6,769	6,868	7,056	7,267	7,416
생산성	-	(63,374)	-	(46,183)	-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보험설계사생산성은 월평균 1인당 수입보험료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frac{\text{누적 보험설계사[대리점] 수입보험료}}{(\text{기초보험설계사[대리점]수+기말보험설계사[대리점]수})/2} \div \text{누적월수}$$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경영효율", 반기별 보도자료.

o 보험설계사 수는 145,613명으로 FY'01 2분기 20만명 이하로 감소한 이래, 2년만에 처음으로 15만명 이하로 감소되었으며 지난 동기에 비해 13.7%가 감소되었음. 또한 임직원수도 전분기 대비 1.4%, 전년동기 대비 6.3% 감소하였음.

o 대형사들과 중소형 내국사들은 영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설계사를 줄이고(2.4%, 6.7%) 대리점 수를 증가(0.3%, 2.9%)시켰으나, 알리안츠생명(△11.6%, △0.7%)을 제외한 외국사들은 보험설계사 수를 늘리고(5.2%), 임직원 수를 늘려(3.8%) 전년도에 이어 영업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방카슈랑스의 전개, 수입보험료 감소 등에 대응해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사들의 경우, 큰 폭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음.**

(이상우 선임연구원, 김진억 선임연구원)

2.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FY2003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장기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의 마이너스 성장, 일반손해보험의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5조 1,163억원으로 큰 폭 하락함.

□ FY2003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5조 1,1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에 그쳐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

o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고연령보장형 상품을 비롯한 건강보험 상품, 의료비보장보험 상품 판매로 인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및 경쟁확대로 인한 자동차보험에서의 마이너스 성장, 일반손해보험의 부진으로 전체 손해보험 산업의 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연간	1/4
총자산	329,844	339,338	352,114	353,683	353,683	361,677
	0.8	2.9	3.8	0.4	8.1	2.2
원수보험료	49,494	51,409	54,958	50,083	205,944	51,163
	12.2	10.9	10.5	7.4	10.2	3.4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율로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임.
2)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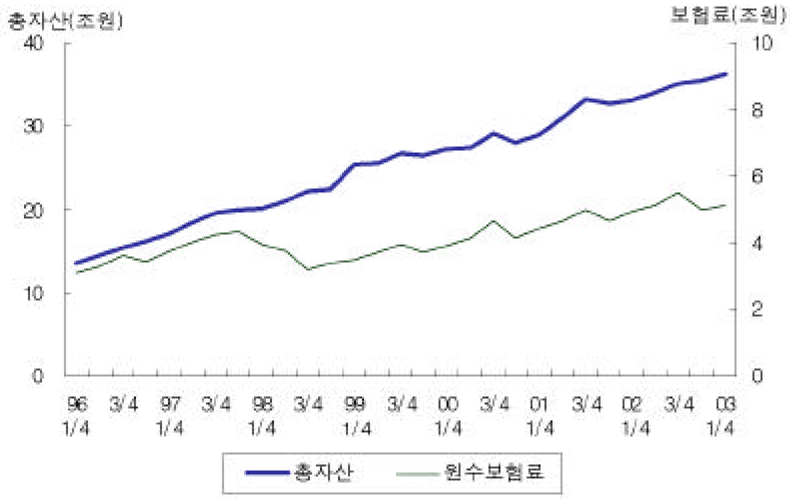
총자산 규모는 투자영업이익 규모의 회복에도 불구, 보험료 성장둔화 및 손해액 증가에 따른 보험수지 악화로 전분기 대비 2.2% 증가한 36조 1,677억원을 시현함.

□ FY2003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6조 1,67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2% 성장하였음.

o FY2003에 들어서면서 투자영업이익 규모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보험료의 성장 둔화에 따른 보험수지 악화로 인하여 총자산 성장세가 제한됨.

o 즉, 투자영업이익은 4,3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8억원 증가한 반면, 보험수지 규모는 283억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1,146억원 감소함.

<그림 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연도별 변동추이



□ FY2003 1/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이 전년 동기 대비 1.8%p 증가한 40.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2.1%p 감소한 37.0%의 점유율을 나타냄.

o 특종보험 8.9%, 보증보험 4.7%, 개인연금 3.3%, 해상보험 2.7%, 화재보험 1.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804	755	910	750	3,219	825
	성장률	13.1	2.2	2.6	7.4	6.1	2.5
	구성비	1.6	1.5	1.7	1.5	1.6	1.6
해 상	보험료	1,506	1,388	1,293	1,418	5,605	1,396
	성장률	31.5	9.6	-12.6	1.1	5.9	-7.3
	구성비	3.0	2.7	2.4	2.8	2.7	2.7
자동차	보험료	19,334	20,917	20,529	18,358	79,138	18,939
	성장률	8.3	7.5	6.5	1.9	6.1	-2.0
	구성비	39.1	40.7	37.4	36.7	38.4	37.0
보 증	보험료	2,184	2,235	2,413	2,530	9,362	2,423
	성장률	40.0	28.1	27.2	29.5	30.8	11.0
	구성비	4.4	4.3	4.4	5.1	4.5	4.7
특 종	보험료	4,302	4,319	4,641	3,472	16,734	4,546
	성장률	24.5	27.2	18.5	11.6	20.6	5.7
	구성비	8.7	8.4	8.4	6.9	8.1	8.9
해외 원보험	보험료	144	121	146	153	564	137
	성장률	7.9	-2.1	63.8	-1.8	12.3	-4.6
	구성비	0.3	0.2	0.3	0.3	0.3	0.3
장 기	보험료	19,302	19,707	20,342	20,783	80,134	20,871
	성장률	11.6	11.0	9.6	7.8	10.0	8.1
	구성비	39.0	38.3	37.0	41.5	38.9	40.8
개 인 연 금	보험료	1,661	1,684	1,701	1,740	6,786	1,704
	성장률	-0.4	0.4	1.7	4.8	1.6	2.6
	구성비	3.4	3.3	3.1	3.5	3.3	3.3
퇴 직 보 험	보험료	258	282	2,982	879	4,401	322
	성장률	-12.9	38.9	50.7	127.3	53.6	24.7
	구성비	0.5	0.5	5.4	1.8	2.1	0.6
계	보험료	49,494	51,409	54,958	50,083	205,944	51,163
	성장률	12.2	10.9	10.5	7.4	10.2	3.4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3 1/ 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조 8,93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최근의 성장률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o 이는 2002년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감소, 최근 2년간 실시된 요율인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확대 등 경쟁심화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o 즉, 분기별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2년 6월말 7.9%에서 2003년 6월말 6.8%로 1.1%p 감소함.

o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 3사의 시장점유율이 4%를 넘어섰으며, LG화재-다음커뮤니케이션, 교원나라자동차보험 등의 시장진출 뿐만 아니라 대형 손보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임.

□ 장기손해보험은 고연령보장형 상품을 비롯한 건강보험 상품과 의료비보장상품의 판매 확대로 인해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함.

o FY2002 이후 저금리 기조의 지속 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판매는 감소하는 반면,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는 꾸준히 증가함.

o 특히, 고연령보장형 건강보험, 의료비보장보험의 판매 확대로 질병보험 부문의 보험료 규모가 대폭 증가함.

□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1.0% 증가한 2,423억원을 나타내면서 성장률이 둔화되었음.

o FY2002 급성장하였던 상업신용, 할부신용, 신용카드 등 신용보험 시장 성장이 성숙되고,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 강화, 신용불량자 관리 등에 따라 대출용 보증보험 판매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해상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7.3% 감소한 1,396억원의 원수보험료 규모를 보이며 성장률 감소 추세를 나타냄.

o 이는 적하보험, 운송보험, 항공보험 등에서의 요율인하 조정 효과(2003. 4월 시행)와 9.11 테러사태로 급상승하였던 요율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o 즉, 운송보험(-17.4%) 및 항공보험(-28.2%)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선박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18.5%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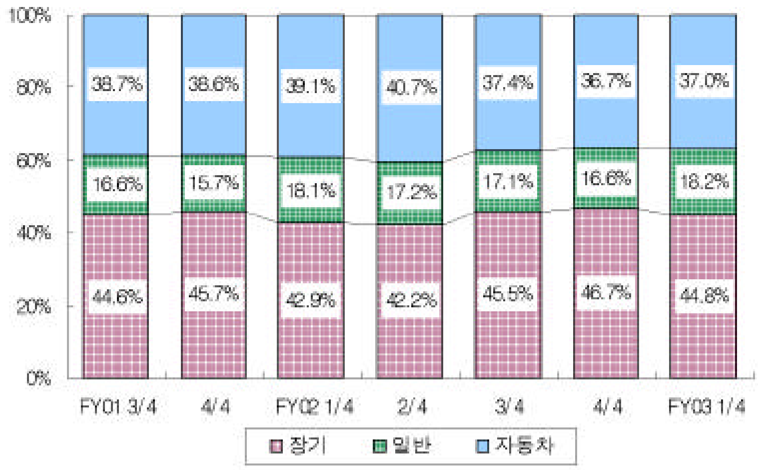
□ FY2003 1/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4,54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 성장률이 대폭 둔화됨.

o 전체 특종보험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경우 각각 10.5%, 10.4% 성장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 성장률 17.9%, 31.0%에 비해 대폭 감소된 수준임.

o 이 밖에도 기술보험 -12.9%, 상해보험 4.2%, 기타특종보험 -25.3% 등 전 종목에서 낮은 성장률을 나타냄.

o FY2003. 4월부터 적용된 요율인하 조정과 더불어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설비투자 부진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임.

<그림 4>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 FY2003 1/4분기 보험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전분기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일반손해보험사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음.

o 일반 손해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94.4%로 전분기보다 0.4%p 증가한 반면, 전업사의 경우 0.4%p 감소하였는데, 이는 동 분기 보증보험사의 성장 둔화에 기인하는 것임.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도 다소 하락한 0.1555를 나타냄.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연간	1/4
점유비	상위4개사	70.0	70.4	70.0	69.6	70.0	69.8
	일반사 계	95.0	94.9	94.6	94.0	94.6	94.4
	전 업 사	4.4	4.4	4.7	5.2	4.7	4.8
	외 국 사	0.6	0.7	0.7	0.9	0.7	0.8
허 핀 달 지 수		0.1516	0.1604	0.1560	0.1557	0.1571	0.1555

주 :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스미토모 6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수지상황

FY2003 1/4분기 손해보험 발생손해액은 3조 4,77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9% 대폭 증가하였으며, 사업비 지출 규모는 1조 1,655억원으로 6.7% 증가함.

□ FY2003 1/4분기 전체 손해보험의 발생손해액은 3조 4,77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2.9% 증가함.

o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율 증가, 보상범위 확대 등에 기인하여 발생손해액이 1조 3,356억원으로 23.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o 이 외에도 특종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에서의 손해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음.

□ FY2003 1/4분기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총 1조 1,655억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어 전년동기 대비 6.7% 증가함.

o 전체 사업비중 46.7%는 자동차보험, 39.6%는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손해보험회사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연간	1/4
발생손해액	30,794	33,120	33,892	34,916	134,670	34,770
	11.8	10.5	22.2	-24.8	2.3	12.9
사 업 비	10,921	11,793	10,370	13,948	47,032	11,655
	30.5	9.7	-0.2	22.7	10.9	6.7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퇴직보험과 부수사업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당기순이익은 보험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영업수지 회복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3% 증가한 3,298억원을 나타냄.

□ FY2003 1/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총수익은 5조 4,27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2% 증가하였으며, 보험영업수익이 4조 7,545억원, 투자영업수익은 5,896억원임.

□ 보험영업수지는 보험료 성장 둔화 및 발생손해액 증가로 인하여 전년동기의 1,429억원 대비 크게 감소한 283억원을 기록함.

o 즉,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 규모는 3.4% 성장하는 부진을 나타냄과 동시에 발생손해액 및 해약환급금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비용 확대로 보험수지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음.

□ FY2003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영업수지는 4,393억원 흑자를 나타내어 전년동기 대비 96.6% 증가하면서 이익규모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

o 투자영업수익은 37억원 증가한 반면, 투자영업비용이 2,121억원 감소함에 따라 투자수지 흑자는 주로 투자영업비용 감소에 기인하는 것임.

o 동 기간 중 주식시장을 비롯한 투자여건이 회복되면서 상품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은 95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2억원 증가하였고, 상품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은 142억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2,429억원 감소함.

□ FY2003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298억원으로 전년동기 1,638억원 보다 1,660억원 증가함.

<표 15>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1/4
총수익	보험영업	43,869	89,670	135,707	185,350	47,545
	투자영업	5,859	11,037	15,972	21,000	5,896
	기 타	891	1,507	4,912	6,516	830
	계	50,620	102,215	156,591	212,875	54,271
총비용	보험영업	42,440	88,397	135,555	185,148	47,263
	투자영업	3,624	5,724	7,284	12,141	1,503
	기 타	2,160	3,056	7,154	9,648	1,439
	계	48,223	97,177	149,993	206,937	50,205
수지차	보험영업	1,429	1,274	151	210	283
	투자영업	2,235	5,313	8,688	8,860	4,393
	기 타	-1,268	-1,549	-2,242	-3,132	-609
	계	2,396	5,038	6,598	5,937	4,067
법 인 세		758	1,417	2,101	2,689	769
당기순이익		1,638	3,621	4,497	3,249	3,298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자산운용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FY2003 1/4분기 중 주식시장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유가증권의 보유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대출채권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FY2003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6조 1,6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7% 증가, 전분기 대비 2.2% 증가하였음.

o 보험사 그룹별 자산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사(상위 4개사)의 경우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형사는 19.0%, 보증보험사 9.2%, 재보사 6.7%, 외국사 0.4%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일반계정 자산의 54.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출채권 16.8%, 부동산 9.0%, 현·예금 5.2%의 구성을 보이고 있음.

o 주식시장의 상승 등 투자여건 호조로 인해 상품유가증권의 주식 보유비중은 전분기 대비 0.2%p 증가하고, 채권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반면, 가계신용부실에 따른 대출억제로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분기 대비 0.3%p 감소함.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율은 85.7%로 전분기 대비 0.4%p 증가함.

o 대형사의 자산운용율은 91.0%로 높은 수준이며, 중소형사의 경우 86.0%, 외국사는 전년동기 대비 3.0%p 증가한 78.0%를 나타내고 있음.

□ FY1999 이후 도입된 퇴직보험을 운용하는 특별계정의 자산비중은 전년동기 대비 0.5%p 증가한 2.8%, 전분기 대비 0.1% 감소함.

□ 주식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상품유가증권의 수익률이 전분기 대비 2.4%p 증가함에 따라 유가증권의 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0.4%p 상승한 8.8%를 기록함.

o 유가증권수익률은 상품유가증권수익률이 전분기 대비 1.7%p 증가에 힘입어 상승하였음.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1/4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수익률
현금과예금	6.5	7.0	6.1	5.9	5.2	4.5
유 가 증 권	54.1	53.6	54.2	53.2	54.6	8.8
o 상품유가증권	22.8	20.8	19.3	17.5	17.7	11.4
- 주 식	1.7	1.0	0.8	0.5	0.7	107.7
- 채 권 등	14.4	13.0	12.7	12.2	12.0	9.6
- 수익증권	6.7	6.8	5.8	4.8	4.9	5.3
o 투자유가증권	31.2	32.8	34.9	35.7	36.9	7.5
- 주 식	5.7	5.1	5.3	4.7	5.5	3.9
- 채 권 등	25.2	27.5	29.1	30.8	31.1	8.1
- 수익증권	0.3	0.2	0.5	0.2	0.3	0
대 출 채 권	14.8	15.1	15.6	17.1	16.8	8.4
부 동 산	9.5	9.3	9.1	9.1	9.0	3.3
운용자산계	84.9	85.0	85.1	85.3	85.7	8.0
비운용자산	15.1	15.0	14.9	14.7	14.3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97.7)	100.0 (97.8)	100.0 (97.2)	100.0 (97.1)	100.0 (97.2)	6.8 -
특별계정자산	2.3	2.2	2.8	2.9	2.8	-
총 자 산	100.0	100.0	100.0	100.0	100	6.6

주 :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 )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경영효율

FY2003 1/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사업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종목 등의 손해율 악화에 기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2.6%p 상승한 98.4%를 기록함.

□ FY2003 1/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98.4%로 전년동기 대비 2.6%p 증가함.

o 자동차보험 종목 등에서 합산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손해율 증가

에 기인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업비율은 0.8%p 감소한 반면, 손해율이 전년동기 대비 10.1%p, 전분기 대비 4.5%p 증가하여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 상승을 주도하였음.

<표 17> 손해보험회사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1/ 4	2/ 4	3/ 4	4/ 4	1/ 4
경과손해율	70.7	71.1	73.5	72.9	73.7
사업비율	25.1	25.3	24.4	25.5	24.7
합산비율	95.8	96.4	97.9	98.4	98.4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퇴직보험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 산업 전체 손해율은 73.7%로 전년동기 대비 3.0%p 증가함.

o 자동차보험은 72.9%의 손해율을 나타내어 전년동기 대비 10.1%p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증가 및 작년 10월부터 적용된 보험료 인하에 따른 수입보험료 감소, 월드컵이후 사고건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진료, 정비수가 등의 인상과 올 1월부터 사망위자료를 늘리고 소지품까지도 보상하는 등 보험금 지급기준이 인상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o 장기보험은 위험률 상승 조정효과 및 언더라이팅 강화로 손해율이 전년 대비 0.7%p 감소한 80.9%로 나타남.

o 특종보험은 재보험자 협의요율 상승에 기인한 보험료 인상효과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전년 대비 6.4%p 감소한 43.1%로 나타남.

□ FY2003 1/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산업의 사업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0.4%p 하락한 24.7%를 기록함.

o 시장구성비가 높은 자동차보험의 경우 시장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차기이월미경과보험료 감소로 경과보험료 규모가 확대함에 따라, 사업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0.8%p 감소한 29.7%로 나타남.

<표 18>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1/4
화재보험	41.7	46.9	57.0	54.3	62.7
해상보험	37.4	49.5	53.4	51.6	45.7
자동차보험	62.8	64.7	66.9	68.4	72.9
보증보험	38.6	42.4	77.7	42.0	33.8
특종보험	49.5	46.0	41.4	47.5	43.1
해외원보험	52.4	52.6	54.5	50.4	46.5
장기보험	81.6	81.4	81.4	81.5	80.9
개인연금	113.3	113.7	114.4	118.7	114.6
전 체	70.7	71.1	73.5	72.9	73.7

자료 : 손해보험회사,『업무보고서』, 각 월호.

FY2003 1/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총자산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상승세 등 투자 여건 호조로 전분기 대비 0.5%p 상승한 6.6%로 나타남.

☐ FY2003 1/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 수익률은 6.6%로 전분기 대비 0.5%p 상승, 전년 대비 0.6%p 감소함.

o 특히 운용자산의 수익률 중 상품유가증권 수익률이 동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는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되어, 전분기 대비 2.4%p 상승함으로써 총자산 수익률 상승을 주도함.

<표 19> 손보사 자산운용율 및 총자산 수익률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1/4
자산운용율		84.9	85.0	85.1	85.3	85.7
수익률	운용자산	8.7	8.1	7.6	7.5	8.0
	총자산	7.2	6.7	6.3	6.1	6.6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총자산수익률=(투자영업수익×2)/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투자영업수익)×(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판매채널

> **FY2003 1/4분기에는 대리점을 통한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지속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보험설계사의 판매비중은 감소함.**

□ FY2003년 1/4분기에는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회사직급 9.9%, 보험설계사 35.3%, 대리점 51.4%, 중개인 0.5%, TM 1.5%, CM 0.5%, 공동인수 0.9%임.

- o 부실 모집조직에 대한 자체내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대리점 전환 방침에 따라 대리점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2.5% 증가함.
- o 회사직급의 경우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TM, CM의 실적이 별도로 분리된 데 따른 것임.

<표 20> 손보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1/4
회사직급	5,515	11,162	16,962	22,179	5,019
	11.2	11.1	11.1	11.0	9.9
보험설계사	18,287	37,214	56,111	74,411	18,021
	37.1	37.1	36.8	36.9	35.3
대 리 점	24,864	50,923	77,726	102,932	26,130
	50.5	50.7	51.0	51.1	51.4
중개인	-	-	-	-	248
	-	-	-	-	0.5
TM	-	-	-		755
	-	-	-	-	1.5
CM	-	-	-	-	231
	-	-	-	-	0.5
공동인수	571	1,064	1,540	2,019	436
	1.2	1.1	1.0	1.0	0.9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o TM의 경우는 온라인자동차보험판매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보험(678억)과 장기무배당보험(65억)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CM의 경우는 자동차보험(223억)과 장기무배당보험(6억)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구조조정 및 방카슈랑스 대비 모집조직 정비로 FY2003 1/4분기 대리점당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9.0% 증가함.

□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규모는 2천 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2% 감소하였으며, 보험설계사 생산성(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은 전년동기 대비 3.0% 악화됨.

o FY2003 1/4분기 모집조직은 전분기와 비교하여 임직원은 감소하고 보험설계사는 증가한 반면 대리점의 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 손보사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천원,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1/4
임 직 원	20,518	20,950	20,736	20,886	20,569
	26,877.1	53,281.2	81,799.0	106,191.8	24,402.6
보험설계사	55,846	54,459	55,258	54,291	56,762
	32,745.0	68,333.6	101,543.4	137,060.2	31,748.7
대 리 점	52,714	52,975	52,066	50,877	50,828
	47,168.4	96,126.7	149,283.8	202,316.3	51,409.6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조혜원 선임연구원, 신동현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1. 금융법체제 개편 추진 및 파급효과

<개요>

재경부, 금융법 체제 개편 추진방안' 논의

□ 재경부, 2003년도 제 1차 금발심 전체회의(8.26)에서 '금융법 체제개편 추진 방안'을 논의함.

o 기능별 분류방식에 따른 현행 금융 관계법률의 재구성 방안(서울대 금융법센터)

o 금융기관 업무영역·진입 및 퇴출 ·구조개선 분야 연구(KDI)

o 금융회사 자산운용 제도개선 및 통합규율체제 구축방안(금융연구원)

o 금융상품별 금융거래제도 구축방안(증권연구원)

□ 재경부, 2004년 2/4분기까지 기능별 개편방안 시안을 확정, 4/4분기에 최종안 확정, 2005년 국회에 제출, 2007년 또는 1년 유예를 거쳐 2008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기능별 분류방식에 따른 현행금융관계법률의 재구성 방안>

□ 금융환경변화는 기능별 접근방식의 통합법에 의한 금융규제를 요구하고 있음.

o 금융통합법안의 기본방향과 대략적인 체계 수립

o 금융통합법안의 핵심을 이루는 기본개념(금융상품, 금융업무 등)구성

o 현행 금융관계법의 기능별 분류

□ 통합법의 기본체제는 기본방향, 적용범위, 내용, 형식, 지위 등을 포함하고 있음.

o 통합법의 기본방향은 원칙적으로 현상유지와 예외적 수정을 바탕으로 함.

입법체제와 기술은 영국을 모델로, 상품별 기관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금융상품의 정의를 한정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o 입법체제와 기술은 영국을 모델로 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하면서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

o 규제철학의 기초(상품별/ 기관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o 금융상품의 정의(한정적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 통합법의 적용범위는 금융상품, 금융업무, 거래상대방 구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o 금융상품은 현행 증권거래법상 한정적 열거주의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호주방식의 포괄적 정의를 도입할 예정임.

o 금융업무는 새로운 금융상품 정의를 기초로 현행 금융관련법상 규제대상업무를 금융업무로 정의할 예정임.

o 거래상대방의 구분은 거래상대방을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여 후자와의 거래에 규제조치를 집중함으로써 한정적인 규제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금융시장 전체의 규제완화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통합법의 내용은 진입 · 업무영역, 건전성, 업무행위, 퇴출 · 조직변경으로 구성

□ 통합법의 내용은 진입 · 업무영역 규제, 건전성 규제, 업무행위 규제, 퇴출 · 조직변경 규제로 이루어짐.

o 금융감독기구의 책임근거와 규제권 행사의 목적과 원칙 등을 통합법에 포함할 것으로 보임.

o 금융유관기관의 설립근거는 별도의 법률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o 외국환거래법과 금융규제법은 그 규제목적을 달리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도 필요한 범위에서 통합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o 자산운용업은 본질상 통합법의 대상에 포함되어, '간접투자기구상 권리'는 '금융상품', '간접투자기구상 권리'에 대한 매매 기타 일정한 행위는 '금융업무',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등 간접투자기구 관련자에 대하여 건전성 규제를 적용함.

o 재경부 소관 이외의 금융관계법률의 처리부분에서 건전성 규제와 업무행위 규제에 대해서는 통합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전제로 작업이 진행중임.

통합법의 형식은 복수의 개별통합법과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

□ 통합법의 형식은 금융규제의 기능별 항목에 따라 복수의 개별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금융규제의 기능별 항목 전체를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o 복수개별법에 의한 통합 방안은 업무영역 규제(금융기관 등의 설립에 관한 법률), 건전성 규제(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업무행위 규제(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퇴출·조직변경 규제(금융기관 등의 퇴출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구성됨.

o 단일통합법에 의한 통합방안은 영국의 FSMA(단일통합법), 호주의 FSRA(업무행위규제), 일본의 금융상품등의 판매 등에 관한법률(업무행위규제중 일부)을 참고하여 검토 중임.

□ 통합법의 지위는 위임입법의 한계, 감독기관의 재량권 확대 및 책임확보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o 현행법상 법률사항과 시행령사항 기타 감독사항 등에 관한 원칙을 검토하고, 입법기술상 하부규정에의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임 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o 통합법의 일반성과 추상성으로 인하여 감독기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의 책임확보 방안은 감독기관의 규제 목적과 규제된 행사의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임.

<금융기관 업무영역 ·진입 및 퇴출 ·구조개선 분야 법체제>

업무영역·진입분야는 일관성·형평성 있는 금융행위 및 금융상품 인허가 기준을 마련

□ 업무영역·진입분야는 금융관계 법령의 통합 또는 규제체제 및 감독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일관성·형평성 있는 금융행위 및 금융상품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업무영역·진입규제 개편을 위한 대안은 '대안 3안'을 기초로 하되 핵심업무의 유지 등을 통해 체제변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임.

o '대안 3안'은 모든 금융행위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금융상품은 금융행위별로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음.

- 또한 각 금융행위별로 동일한 기능별 규제체계를 적용함.

o 현행 체제대로 금융권역별 핵심업무를 유지하되 핵심업무는 '좁게' 정의함.

o 비핵심업무에 대해서는 금융행위별 인허가 체제 도입함.

금융권별로 상이한 영업상 제재와 적기시정조치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

□ 금융기관의 퇴출 및 구조개선 분야는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영업상 제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한 법조항 들의 체계적 정비, 금융기관의 합병·분할·분할합병·전환 등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o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영업상 제재상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겸업화 증가 및 복합상품 등장에 따른 신규 제재 규정 도입 여부 문제, 동일 또는 유사 위반행위에 있어 업무영역별 제재 형평성 문제, 위반행위별 최적 제재 유형의 선택 및 최적 제재 강도 설정 문제 등임.

o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의 경우, 관련법간의 상충문제 발생시 이를 해소하거나 우선순위 부여, 금융행위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의

부실정리절차 재검토, 적기시정조치가 금융감독 수단의 일부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목표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합의 도출, 적기시정조치 집행시 감독당국의 자의성 부여 여부,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전에 적기시정조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발동기준 합리화 등임.

도산, 합병 등의 절차도 간소화

o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한 법조항들의 체계적 정비는 적기시정조치 체계, 일반적 금융기관 감독체계 등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

- 또한, 국내 금융시장에의 파급효과, 국제 자본시장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함.

o 금융기관의 합병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 금융기관의 합병이 일반기업의 합병과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 달리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립해야 함.

- 합병의 경제적 이점과 금융기관 이해당사자 보호간의 상충 가능성, 금융기관의 합병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금융회사 자산운용 제도개선 및 통합규율체제 구축방안>

□ 금융회사 자산운용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된 이슈는 건전성 규제, 자산운용 규제 및 편중여신 규제에 관련된 것임.

o 건전성 규제 관련 이슈는 업종간 자기자본 규제방식 및 항목에 대한 평가, 업종간 경영실태평가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업종간 적기시정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평가, 경영지도기준 통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임.

자산운용,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o 자산운용 규제 관련 이슈는 자산운용 규제의 원칙과 방식, 자산운용 규제의 틀 및 준거와 관련된 이슈, 자회사 출자한도에 대한 규제, 유가증권 규제, 대출관련 규제, 부동산관련 규제, 부외거래 규제에 대한 평가 등임.

o 편중여신 규제 관련 이슈는 신용공여에 대한 범위 및 개념, 대규모기업 집단에 대한 여신규제 방식과 과제, 편중여신 기준 및 형태에 대한 비교, 금융지주회사의 신용공여한도 규제 개선 방향 등임.

□ 통합규율체제 구축방안은 기본과제와 더불어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o 기본과제는 기능적 측면의 통합범위와 업종별 개별 규제의 범위 설정과 자산운용규제의 기능적 통합 및 통일된 구조를 갖추기 위한 법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세부과제는 통합기준에 의한 업종별 자산운용규제방식 설정하여 업종별 자산운용규제방식에 대한 법적 구조 및 상위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금융상품별 금융거래제도 구축방안>

□ 금융상품 정의와 관련된 이슈는 금융상품의 포괄범위와 금융통합법의 적용범위, 금융상품 정의 체계와 방식 등임.

o 또한, 금융상품의 포괄적 정의 필요성과 포괄성 정도, 금융상품의 경제적 기능과 분류기준 설정, 금융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분류기준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금융거래와 관련된 이슈는 증권거래와 선물거래 법규정, 여수신거래 법규정, 보험거래 법규정, 금융거래자보호 법규정, 전자금융거래, 금융거래 인프라 등임.

o 증권거래와 선물거래 법규정과 관련된 이슈는 금융기관간 증권업무, 금융기관간 파생상품업무,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 중개업무 규제 등임.

<통합금융법 제정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 효과>

각 금융 부문간의 형평성 제고

□ 금융법의 통합으로 경제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잇점은 형평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임.

o 즉, 여러 부문에 존재하는 유사한 상품들을 기능적으로 묶어서 규제·감독함으로써 각 부문간의 형평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상품 규제에 관해 포괄주의를 도입해 현재 금융 권역별, 상품별 개별 법체제를 기능별로 통합, 단순화할 것으로 보여 금융기관의 상품개발과 자산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 금융기관 퇴출과 관련해서, 금융권별로 상이한 영업상 제재와 적기시정조치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도산, 합병 등의 절차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임.

□ 기능별 규율체제의 정립을 통한 금융법 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현행 기관별 규율체제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능별 규율체제의 정립을 통해 금융법체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임.

(신동현 연구원)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개요>

기능별 규제원칙에 따른 규제를 통해 기관별 자산운용산업 간의 공정한 경쟁 유도

□ 현재 4개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자산운용업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통일된 자산운용업법을 새로 제정, 이 법에 의해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한다는 것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제정취지임.

o 여기에서 말하는 4개의 법률이란 증권투자신탁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의 증권투자회사법,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업법, 변액보험의 보험업법을 지칭함.

o 현행 개별입법에 의한 기관별 규제는 기관간 규제의 불공정성, 규제의 공백상태를 발생시킴.

o 통합입법에 의한 기능별 규제원칙에 따른 규제를 통해 기관별 자산운용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

o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2003년 8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9월에 법령 공포, 2003년 말부터 시행 예정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 자산운용업법의 적용범위는 모든 자산운용행위에 대한 통일적 규제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o 간접투자기구(펀드)설정을 통한 자산운용(투자신탁, 투자회사 등)과 재량권 위임에 따른 자산운용투자일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간접투자기구의 정의를 살펴보면, 간접투자기구에 의한 모든 자산운용행위는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금지대상이고, 이 법에 의해서만 허용될 수 있음.

o 허용된 간접투자기구의 형식상 분류를 보면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구분됨.

<간접투자기구의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수탁자 중심주의로 전환

□ 현행의 지배구조는 수탁자 중심주의와 이사회 중심주의로 되어 있어 기능별 규제원칙에 따른 지배구조의 단일화 필요성으로 인해 수탁자(자산보관회사: 은행) 중심주의로 전환함.

o 이는 수탁기관형 지배구조에 익숙해 있고, 복수지배구조 채택의 비용 및 감독비용 과다를 해소하기 위함.

<간접투자의 당사자와 관계인>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기구의 설정 운영 등, 투자신탁의 설정・운영・해지, 투자회사의 설립,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자기가 설정한)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간접투자증권의 판매・환매 등의 업무를 함.

수탁회사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산운용행위 감독권 강화

□ 수탁회사 혹은 자산보관회사 입장에서는 간접투자재산,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관리 업무와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행위감독권이 강화됨.

o 이는 자산운용에 대한 감시의무, 시정요구, 금감위보고 등(131조 이하)과 투자설명서의 위법성, 자산평가의 공정성, 기준가격 산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의무를 포함함.

□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모든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판매업무를 함.

o 특히, 보험회사는 판매업을 할 수 있게 됨.

□ 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의 운영을 보조하는 회사로서 기준가격 산정, 주식발행 등의 업무를 함.

□ 수탁회사보고서 혹은 보관회사보고서

o 간접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 허위작성 또는 자료 미제공에 대한 책임장치 마련

o 공시자료 미작성 혹은 허위작성에 대한 벌칙 마련

<금융회사에 대한 특칙 중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업무범위의 제한

o 자산운용회사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을 통해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음.

- 이 때 투자신탁의 설정이 가능한 대상은 변액보험인 특별계정에 한하며, 당해 특별계정은 이 법의 목적상 투자신탁으로 봄.

o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본・지점뿐만 아니라, 보험판매채널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음.

o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은 사모투자신탁으로 설정될 수 없음.

o 보험사는 투자신탁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음.

- 투자 신탁 운용업무에 대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음.

□ 투자신탁의 설정과 신탁금의 납입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인 특별계정에 한하여 수탁회사와 신탁계약 체결을 통해 운용

o 변액보험인 특별계정도 투자신탁의 설정을 통해 운용되어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 경우 수탁회사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이어서는 안됨.

o 보험회사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 하지만, 변액보험인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약관에 관한 규정은 배제되고 보험약관규정이 적용될 것임.

□ 보험업, 운용업, 사무관리업,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 체계의 설정

o 보험업, 자산운용업, 사무관리업의 경우에 3가지 이해상충행위 방지 체계를 설정함.

- 각 업무에 대한 임원 또는 직원의 겸직금지

-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의 공동사용 금지

- 임직원간의 정보교류 제한

o 사무관리업과 운용업, 판매업

- 사무관리정보를 운용시 및 (특별계정인 투자신탁 및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시 이용 금지함.

- 사무관리업과 운용업 분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사무관리업과 (특별계정이 투자신탁 및 다른 간접투자증권) 판매업을 분리함.

o 판매업과 자산운용업

- 판매정보(판매하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는 운용시 및 특별계정인 투자신탁의 판매시 이용금지

-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운용을 위해 혹은 판매를 위해 이용해서는 안됨.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 이 법에 의하지 않은 자산운용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인가받지 않은 자의 유사자산운용행위를 금지함.

□ 공모펀드에 관한 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투자신탁 혹은 투자회사의 방식만 인정함으로써 공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

□ 또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규제내용과 정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가져감으로써, 투자수단(investment vehicle)의 형태에 따른 규제의 차이를 제거함.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변액보험의 수탁기능 분리

- o 자산운용과 관련된 감시기능 강화
- o 중복투자로 인한 과다 비용발생 및 변액보험시장의 위축 - 수탁수수료 상승이 보험계약자로 전가될 것으로 예상됨
- o 기존의 수탁감시기능과의 중복 및 상충문제 발생

□ 변액보험의 대출금지

- o 보험고객니드에 따른 자산운용수단의 다양화를 효율적으로 기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
- o 대출자산을 포함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저해

(신동현 연구원)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자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시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 200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현재 대물보험 미가입자(약 12%, 170만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상지연문제나 불충분한 보상으로 인한 분쟁이 감소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임.
- 시행시기는 준비과정을 거쳐 1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보험금의 규모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에서 결정할 계획임.

피해자 청구시 보험회사의 가불금 지급 의무화

□ 가불금 제도의 개선

-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불금 지급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됨.
- 현행 가불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와 보험회사간 합의 지연 등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가 가불금 지급을 중단하여 발생하는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보험회사가 가불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70% 범위내에서 정부에 청구할 수 있음.

음주운전시 자기부담금제 도입

□ 음주운전시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

o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사후에 구상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도입됨.

적정 정비요금 공표로 분쟁 예방

□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표 근거 신설

o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 양 업계간 정비요금계약에 참고하도록 함.

□ 기타 제도개선 사항

o 첫째, 현행법상 강제보험을 의무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함.

o 둘째,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범칙금 수입을 현재 국고에서 시·군·구 수입으로 전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도함.

o 셋째, 임시운행 허가시에도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보험미가입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함.

o 넷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공익위원의 수를 현행 3인에서 6인으로 확대하여 공익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재 의료업계와 보험업계에서 심의회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화하여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함.

o 다섯째, 현재 의무보험미가입자 근절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 요약>

시행시기	제도개선 사항	주요 내용
공포후 1년6개월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이외에 대물보험에도 가입 의무화 · 가입한도금액 :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 ·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한도액 : 500만원
공포후 1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자기부담금제 도입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사후 구상하는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 · 자기부담금 사유는 시행령에서 규정 · 자기부담금 금액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 개선	- 위원의 정수와 공익위원의 수를 확대 (현행 15인→18인이내, 공익위원을 3인→6인) - 양업계(보험회사 및 의료기관)가 운영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강제보험을 의무보험으로 명칭 변경	- 책임보험, 사업용차량의 대인배상II, 대물보험 등을 의무보험으로 명칭하여 운영
공포후 6월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성·운영	-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험전산망과 자동차관리망을 연계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성·운영함.
	가불금제도 개선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불금 청구시 보험회사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간내에 가불금을 지급해야 함. · 미지급시 2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 -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될 시 반환청구 가능 · 반환받지 못할 경우 100분의 70범위내에서 정부가 보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재원으로)
	정비요금 공표제도	- 건설교통부 장관이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하여 결과 공표
공포후 즉시시행	임시운행 허가시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신청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운행허가를 하도록 규정
	범칙금 수입의 지자체 귀속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이 현행 국고에서 지자체 수입으로 전환됨.

(조혜원 선임연구원)

4. 보험상품판매동향

<생명보험상품>

생명보험사, 보장성과 특약보험 상품개발에 주력

□ FY2003 1/ 4분기 동안 생명보험회사가 신규 판매한 보험상품의 종류는 187종(전기 대비 46.1%증가)으로 보장성보험과 특약보험 상품개발이 중심을 이룸.

- o 개인보험은 151종으로 80.7%의 비중을 차지하고 단체보험은 36종, 19.3%의 비중을 차지하여 대부분 개인보험 중심으로 신규 판매되었으나 단체보험은 전분기의 19건(14.8%)과 비교할 때 단체보험 개발이 활성화 됨.

□ 무배당 보장성상품은 162종으로 전체중 86.6%의 비중을 차지하여 대부분 무배당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판매되었음.

- o 보장성보험은 주보험이 55종(32.7%), 특약이 113종(67.3%)이 판매되어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특약중심의 상품개발이 이루어짐.

□ 저축성보험은 18종(9.6%)이 신규 판매되었으며 배당보험이 5종, 무배당보험이 13종으로 무배당 위주로 판매되었음.

- o 저축성보험의 경우 연금보험, 생사혼합보험의 순으로 개발 판매되었으며, 전분기에 이어 교육보험은 신규판매되지 않았음.

<표> **FY2003 1/4분기 생명보험 신규 판매상품 현황**

(단위 : 건)

구 분		보장성			저축성				기타	합계
		주보험	특약	소계	교육	연금	생사혼합	소계		
개인	배당	-	6	6	-	1	-	1	-	7
	무배당	44	88	132	-	7	4	11	1	144
단체	배당	-	-	-	-	2	2	4	-	4
	무배당	11	19	30	-	1	1	2	-	32
합계	배당	-	6	6	-	3	2	5	-	11
	무배당	55	107	162	-	8	5	13	1	176

주 : 1) 기타는 제도성 특약 등을 말함.
2) 대한생명을 제외한 수치임.

□ 신규 개발증가는 순차적 위험률 변경상품의 개발에 따른 보장성 특약의 신규판매가 주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의 개발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무배당 보장성보험이 주류인 가운데, 연금보험 지속적 성장

□ FY2003 1/4분기말 현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종류는 1,175종으로 보장성보험과 특약보험이 주류를 이룸.

o 전체 판매상품중 특약 731종(62.2%), 주보험 444종(37.8%)으로, 주보험은 전분기 449건 대비 1.1%감소함.

o 주보험중 보장성보험(73.2%), 교육보험(1.1%), 연금보험(11.5%), 생사혼합보험(14.2%)으로 연금보험이 성장하고 있음.

o 2003년 6월 말 현재 판매중인 주보험 중 개인보험은 340건 (76.6%)이고 단체보험은 104건(23.4%)임.

- 개인보험의 구성 : 보장성보험(74.1%), 연금보험(13.8%), 생사혼합보험(10.6%)
- 단체보험의 구성 : 보장성보험(70.2%), 생사혼합보험(26.0%), 연금보험(3.8%).

<표> FY2003 1/4분기 생명보험 판매상품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전체	구성비	무배당	구성비
개인	보장성	252	74.1	252	74.3
	교육	5	1.5	4	1.2
	연금	47	13.8	47	13.9
	생사혼합	36	10.6	36	10.6
	소계	340	100.0	339	100.0
단체	보장성	73	70.2	72	75.8
	교육	-	-	0	-
	연금	4	3.8	2	2.1
	생사혼합	27	26.0	21	22.1
	소계	104	100.0	95	100.0
주보험		444	37.8	434	40.6
특약		731	62.2	635	59.5
총 계		1,175	100.0	1,068	100.0

주 : 대한생명을 제외한 수치임.

□ 무배당 보장성보험이 주류이나 연금보험의 구성비가 전분기 10.5%에서 11.5%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o 무배당 보장성 보험을 통해 다양한 보장을 추구하는 것이 대세이나 소득의 불안정으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고객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3년 1월 6월, 신계약 건수기준 최다판매 상품은 상해보험이 주류를 이룸(이하 대한생명을 제외한 수치임).

o AIG생명의 (무) 차량탑승상해보험으로 동기간 1,251,172건이 팔려 수위를 차지를 했으며 라이나생명, 동양, AIG(무배당AIG 교통상해)가 상위를 차지함.

o 상위 20건중 11건이 상해보험이고, 3건이 종신보험임.

- 상해보험과 종신보험의 신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상해보험의 대부분은 제휴상품과 단체상품으로서 저렴한 보험료를 이용한 마케팅활동과 연계된 상품이 주류를 이룸.

□ 2003년 1월 6월, 수입보험료 기준 최다 상품은 저축보험이나 종신보험이 판매의 대세를 이루고 있음.

o 삼성생명의 무배당 듬뿍저축보험으로 9,525억원으로 이를 포함하여 상위 6위까지 삼성생명의 상품이었음.

o 상위 20위 이내의 상품에는 종신보험(7개), 연금보험(3개), 생사혼합보험(7개)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저축성보험이 상위 1, 2위를 차지해 저축성보험의 수입보험료가 두드러짐.

o 사망보험외에 저축보험의 수입보험료가 많은 이유는 금리하락에 따른 예정이율의 인하 전 비교적 고이율의 상품들이 유지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손해보험상품>

손해보험회사, 특종보험과 보장성 장기상품의 개발·판매가 중심

□ FY2003 1/4분기 동안 손해보험회사가 개발·판매한 상품은 일반손보 31종, 장기손해보험 52종이었음.

o 1/4분기 개발·판매된 상품으로는 일반손보상품 31종, 이중 특종보험이 24종으로 일반손보 개발건수 중 77.4%를 차지함.

o 장기손해보험상품은 52종이 신규 판매되었으며, 이중 보장성보험이 49종으로 94.2%를 차지함.

- 보장성보험은 건강(15종), 상해(14종), 운전자(13종) 순으로 개발판매 되었으며 모두 무배당 상품임.

□ 다양한 소비자 보장니즈에 맞춘 종합, 건강, 상해보험의 개발의 주를 이루며, 보장성 및 순수보장성 위주의 신상품 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 FY2003 1/4분기 손해보험 판매상품 현황

(1) 일반손해보험

(단위 : 건)

구 분		자사개발	계
화재보험		-	-
해상보험	적하	4	4
	선박	1	1
	항공·우주	-	-
	운송	-	-
	해양종합	-	-
	기타	1	1
	소계	6	6
특종보험	기술	-	-
	근재	-	-
	책임	3	3
	상해	13	13
	종합	6	6
	기타	2	2
	소계	24	24
자동차보험		1	1
개인연금		-	-
퇴직보험		-	-
보증보험		-	-
합 계		31	31

(2) 장기손해보험(전부 무배당)

(단위 : 건)

구 분		전통형	보장 · 적립 분리형		합계
			금리확정	금리연동	
보장성	상해	8	1	5	14
	건강	9	1	5	15
	어린이	1	1	3	5
	운전자	6	1	6	13
	재물	1	-	1	2
	소계	25	4	20	49
저축성	상해	-	-	3	3
	건강	-	-	-	-
	어린이	-	-	-	-
	운전자	-	-	-	-
	재물	-	-	-	-
	소계	-	-	3	3
합 계		25	4	23	52

주 : 1) 보통약관기준(특별약관제외)
주 : 2) 보고일 직전 분기중에 판매된 보험상품 대상.
주: 3) 순수보장형 상품은 전통형에 포함.

손해보험회사, 특종보험, 해상보험, 보장성 장기보험이 판매주류

□ FY2003 1/4분기말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종류는 2,701종으로 특종보험과 해상보험, 보장성 장기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o 전분기에서 1.6% 증가한 2,701종으로 특종보험이 1,568종(59.2%)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해상보험 620종(23.0%), 보장성 장기손해보험 189종(7.0%)의 순으로 판매되고 있음.

- 일반손해보험의 구성 : 특종보험(64.3%), 해상보험(24.9%), 자동차보험(6.7%)
- 장기손해보험의 구성 : 보장성 상해보험(28.8%), 보장성 건강보험(24.2%), 보장성 재물보험(14.9%) 등

<표> **FY2003 1/4분기 손해보험 판매상품 현황(주 · 특 합계)**

(단위 : 건)

구분		당분기말 현재
화재보험		82
해상보험		620
특종보험		1,598
자동차보험		167
장기손해보험	보장성	189
	(금리연동)	98
	저축성	26
	(금리연동)	26
개인연금		10
퇴직보험		8
보증보험		1
합 계		2,701

주 : 1) 장기보험의 금리연동형에는 소계 중 금리연동 보험상품의 개수를 기입함.
2) 농작물보험등 위 분류에 적합하지 않은 보험은 특종으로 분리함.

□ FY2003 1/ 4분기기준 판매된 신계약 건수기준 최다판매 상품은 건강보험으로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이 주류임.

o 삼성화재의 무배당 메디컬자녀보험Ⅳ이 53,144건으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이어서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이 뒤를 이음.

- 10위까지 상품중 삼성화재 상품이 7종, 동부화재, 현대해상, LG화재의 운전자 상품이 각각 1종을 차지함.

□ 수입보험료 기준 최다판매 상품은 운전자보험이나, 저축성보험도 수위를 차지함.

o 삼성화재의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으로 수입보험료는 321억원이었으며, 10위까지 상품중 삼성화재가 4종, 현대해상 및 LG화재가 각각 3종을 차지하고 있음.

- 신계약건수와 다른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수입보험료 기준최다 판매상품은 주로 저축성 상품이며, 신계약건수 기준 최다 판매상품은 주로 보장성 상품이기 때문임.

(김진억 선임연구원)

해 외 보 험 동 향

1. 미국, 연금 과세공평성과 규제적절성 문제*

□ 미국에서 현재 경기침체, 조세 공평성과 변액연금 규제 적절성 문제는 보험회사 및 의회 관계자들에게 활발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음.

<경기침체>

금융서비스회사들은 증시로 인한 지속적 손실 초래

□ 2001년 인터넷거품의 붕괴 및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2002년에 엔론사태의 발생 등으로 미국의 장기간에 걸친 경기 호황이 마무리되면서, 2003년 경영진들은 궁지에 빠진 경제, 투자자의 불신이라는 두 가지의 전쟁으로 고전하고 있음.

o Weiss Rating사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침체로 미국 생명/건강보험회사들의 수익이 2001년 154억 달러에서 2002년 73억 달러로 52.6% 감소하는 등 금융서비스 회사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또한 보험회사들은 2001년 44억달러의 자본손실을 본 이후 2002년 투자자산의 매각으로 155억달러의 자본손실을 보았고 이러한 추세는 200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연금상품 판매동향>

□ BestWire e-briefing에 따르면 2002년과 마찬가지로 정액연금은 생명보험산업 성장의 주요한 성장동인이었던 반면 변액보험 상품판매에 집중했던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기록함.

* 본 자료는 LOMA의 "*Taxing Times for Annuities(2003. 8)*"를 요약, 정리한 것임.

주식하락과 저금리 시장에서 정액연금과 지수연동연금 성장

o 개인연금과 단체연금은 정액연금과 지수연동연금 둘 다 판매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견실한 성장을 나타내 원금을 보존하면서 보장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반증하였으며, 특히 2002년 단기은행상품의 수익저조와 주식상품의 손실은 정액연금상품의 성장을 가속화시킴.

o 특히 일시납/변액보험료 이연연금(SPDAs/FPDAs), 시가조정연금(MVAAs), 그리고 주식연동 연금(EIAs) 등 세 가지 연금상품은 저금리환경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냄.

- SPDA/FPDA 판매는 1998년 200억에서 2002년 600백달러로 3배 성장하였으며, 특징으로는 안전하며 단순하고 1 3년의 이자율보장을 제공함.

- MVAA판매는 1998년 25억달러에서 2002년 200억달러로 4배가 성장하였으며, SPDA/FPDA 보다 고이율, 장기의 이율보장, 보장기간의 선택(1년에서 20년)은 한 계약내에 많은 융통성을 제공함.

- EIA판매는 1998년 약 40억 달러에서 2002년 120억 달러로 3배 성장했으며, 2002년 EIA 판매의 약 반이 정액계정으로, 특징으로는 최저 보장과 성장잠재력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며, 높은 선급수수료와 보너스를 모집인에게 제공함.

연금판매성과는 감세정책과 금융시장성과에 영향

□ 이러한 연금상품의 판매는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이 연금상품의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따라 달라질 것임.

o 만약 이자율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향후 주식시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일부상품들을 시장에서 철수시킬 것이며, 또한 수수료가 감소하고 최소보증금액이 낮아질 것임.

o 그러나 주식시장이 개선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변액연금과 뮤추얼펀드 판매가 상승될 것이며 이것은 정액연금판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변화하는 연금선호>

세금인센티브를 통한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의 역할

□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기업들은 점점 더 종업원들에게 퇴직급부를 제공을 위한 자본사용을 꺼리는 경향을 보여 왔음.

o 동시에, 의회는 개인으로 하여금 개인퇴직계정(IRAs), 확정갹출연금(401(k), 403(b)과 457제도)과 기타 다른 저축상품에 대해 다양한 세금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독려해왔음.

o 이로 인해 ACLI(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확정갹출연금(3조달러), IRAs(2.5조달러), 개인연금(5천억달러)과 같은 퇴직저축상품에 상당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애동안 충분한 퇴직자금이 있을지는 의문임.

퇴직기간동안의 자산 연금화는 안정된 퇴직을 위해 중요

□ ACLI에 따르면 현재의 초점은 자산의 축적에 맞추어져 있고, 퇴직기간동안 저축한 금액을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체계적인 마련이 되어있지 않아, 향후 이를 위해 축적된 자산을 연금화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함.

o 연금상품은 일시금을 수입흐름으로 전환(연금화)하는 계약이며 연금화는 퇴직소득을 위한 안전한 재무전략임.

o 연금상품의 장점은 일련의 소득, 사망급부 등에 대해 세금이 연처리를 해준다는 점임.

o 반면 단점으로는 높은 비용을 수반하며 유동성이 제한된다는 점과 소득세율로 두 번 과세되는 점인데 연금 상품은 납세 후 구입되며 소득흐름 또한 과세되기 때문임.

□ 미국의 2000년 비적격 개인연금상품의 수입보험료는 760억 달러였으며 연금보유 가정의 23%가 연간 소득이 2만 5천달러 이하, 47%가 5만달러이하 소득(미국 중산층에 해당)이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ACLI에 따르면 다수의 퇴직자들은 재산을 연금화하는데 소극적임.

<공정한 금융상품간 경쟁>

JAGTRAA 법, 배당과 자본소득에 대해 저율과세

□ 많은 입법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공평성을 통해 타개하려하고 있음.

o 현재의 세법에서는 구입비용을 제외한 연금지불이 총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으로 포함되는 부분은 소득세율로 과세됨.

o 2003년 "직업과 성장 조세감면조정법(JAGRTTA)"에서는 연금상품에 대한 배려가 없었음.

o 의회는 JAGTRAA법을 2003년 5월 23일에 승인했으며 부시대통령은 곧바로 입법승인을 하였음.

- JAGTRRA로 인해 기업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15%로 줄인 반면 이자소득은 계속 정상 소득세율로 과세될 것이며, 동 법안은 1년~2년 내에 발효되고 예비 법규정으로 전환될 것임.

- 이전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율로, 장기자본이득은 20%로 과세되었음.

JAGTRAA 법, 연금에 대한 차별과세로 연금상품의 경쟁력저하

□ JAGTRAA법은 개인퇴직개정(IRA), 401(k), 403(b), 또는 변액연금을 통한 배당과 자본이득이 부시 행정부의 세금삭감정책에서는 저율과세하지 않고 투자자가 퇴직시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할 때, 정상적인 소득세율(25%~35%)로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연금상품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며 퇴직상품을 쇠퇴시키게 될 것임.

o 새로운 법은 직접적으로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변액연금이 세금의 이연, 융통적 소득흐름, 사망보험금의 상속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통한 투자가 세제상 유리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변액연금 투자자들에게 메리트를 떨어뜨림.

o 또한 높은 비용부담, 상품복잡성, 그리고 약세시장은 혼란을 더하며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이 변액연금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음.

o 이연변액연금상품은 주식시장침체와 이전의 세금삭감 때문에 이미 판매가 위축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배당에 대한 새로운 세율과 자본이득세율의 추가 축소가 판매를 더 감소시킬 것이라고 호소함.

<안정형 종신연금소득법(the Secure Annuity Income for Life(SAIL) Act)>

SAIL법은 종신연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부여

□ 2003년 6월 Earl Pomeroy(D-N.D.) 하원의원과 Johney Isakson(R-Ga.) 상원의원은 근로자들이 퇴직저축을 연금화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초당적 법안을 도입함.

o 안정형 종신연금소득법(the Secure Annuity Income for Life, SAIL, H.R. 2458, 2003)은 근로자로 하여금 401(k), 또는 IRA와 같은 적격퇴직저축상품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를 연금화함으로써 종신소득흐름을 안정화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임.

o SAIL법에서는 매년 퇴직연금소득의 3,000달러까지 비과세를 허용함에 따라 퇴직저축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퇴직시 종신연금을 받도록 함(비과세 적격소득 연 20,000달러 내에서 퇴직소득의 15%까지 비과세).

- 이 법은 2003년 연금보존과 저축확대법과 유사한데 매년 비과세될 수 있는 연금소득금액은 2008년까지 1,000달러이고 이후 2,000달러로 한정됨.

* 퇴직기간동안 직면하는 위험

· 예측할 수 없는 퇴직기간 : 65세 때 퇴직하여 예상수명은 적어도 18년이지만 이것은 단지 평균일 뿐임.

· 시장위험 : 퇴직자들은 시장하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없음. 퇴직기간 시작시점의 시장하락은 퇴직자의 적은 은퇴자금의 지속기간을 줄임.
· 물가상승 : 소득은 최소 평균인플레이션율로 유지되어야 함.

조기퇴직, 수명연장 등의 이유로 노후종신소득의 중요성 강조

□ 전국변액연금협회(NAVA), ACLI, MetLife 등은 SAIL법을 지지하고 있음.

o 사회보장과 전통적 확정급부연금이 미래 퇴직소득을 제공하는데 있어 역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조기퇴직, 수명연장 등의 이유로 종신토록 보장되는 소득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o 반면, SAIL법은 투자회사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 ICI), 뮤추얼펀드산업을 대표하는 전국상거래연합을 포함하는 이해단체들을 자극하여 SAIL법의 범위를 비연금형태 지급, 즉 정기적 지급으로 확장해주길 원하고 있음.

< 기타 유사법안 >

종신연금지급법은 종신연금에 대해 저율과세 허용

□ 비록 JAGTRRA법과 SAIL법이 최근 언론의 많은 초점을 받고 연금판매사의 관심을 받았지만 다른 법안이 거의 2년동안 의회에서 계류되어 있음.

o Phil English(R-Pa), Nancy Johnson(R-Conn.) 그리고 Karen Thurman(D-Fla)의원에 의해 2001년 11월에 소개된 H.R. 3320, 즉 종신연금지급법(LAP)은 현재 거의 50명의 초당적 공동후원자가 있음.

o LAP법은 사적저축으로 구입된 연금에 대해 연금소유자가 종신지급을 선택할 경우 소득세율로 과세되지 않고 자본이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o 부유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며 주식은 낮은 자본이득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전형적인 중산층은 연금투자를 하며, 이는 보다 높은 소득세율로 과세됨.

o 저율에 대해 적격요건은 연금 또는 생명보험지급이 1인 이상의 개인의 종신연금일 뿐만 아니라 IRS규정에서 설정된 현재의 연금지급의 정의를 충족해야하는 것임.

<변액연금 규제적절성에 대한 논란>

NAIC는 변액연금 등에 대한 규제를 위해 모델법 구상

□ 연금분야 특히 변액연금분야에서 규제의 적절성(suitability)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o 주식시장의 장기 호황기동안 변액연금은 인기있는 투자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판매관행이 악용될 가능성도 증가함.

o 변액연금은 연방법에 의해 증권으로 간주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보험상품으로 간주되어 증권법과 보험법, 모두에 의해 규제됨.

o 정액연금과 변액연금의 성격을 혼합한 주식연동연금(EIA)상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금융상품범주를 형성하며, 이러한 상품들은 전형적으로 SEC에 증권으로 등록되지 않으며 SEC 혹은 NASD에 의해 규제되지도 않음.

o NAIC(보험감독자협의회)는 5년간 논의 끝에 공식적으로 증권과 보험규제의 적절성에 관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2003년 가을 회의시 규제의 적절성에 관한 법안(생명보험과 연금모델법)을 채택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동 모델법은 노령자보호를 위해 노령자에 대한 정액연금과 변액연금 판매기준 마련에 초점을 맞춤.

(김진억 선임연구원)

2. 미국, 보험산업 현안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2003년 주요 현안과제로는 투자문제, 수익성 향상, 지속적 성장 등으로 조사

□ LIMRA(Life Insurance Marketing Research Association)에서는 미국내 회원사 CEO를 대상으로 각 회사가 대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안 문제와 이러한 이슈들이 회사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CEO들이 자본시장의 지속적 침체와 관련한 투자문제(54%)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

- o 그 밖에도 수익성 향상(26%), 지속적 성장(17%), 판매채널(17%), 전략의 수립/이행(13%), 사업비 관리(13%) 등이 중요 현안과제로 조사되었음.

<표> 연도별 주요 현안과제

(단위 : %)

구 분	투자문제	수익성 향상	지속적 성장	판매채널	전략의 수립/이행
1991	22	15	15	NC	9
1992	21	13	25	NC	9
1993	30	21	30	NC	12
1995	13	14	24	NC	19
1996	14	25	30	31	36
1997	9	27	39	32	36
1999	2	29	41	28	23
2000	22	27	11	45	18
2001	3	24	50	29	21
2002	25	27	25	30	25
2003	54	26	17	17	13

주 : NC는 해당연도에 분류되지 않았음(Not Classified)을 의미함.

중대형사는 투자문제 수익성 향상, 소형사는 사업비관리 투자문제 지속적성장을 중요시

□ 회사 규모별로 설문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사, 중형사 모두 투자환경 및 수익성 향상을 중요한 두가지 이슈로 언급하였음.

o 반면, 세번째로 꼽힌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대형사의 경우 판매채널와 전략의 수립/이행, 중형사는 지속적 성장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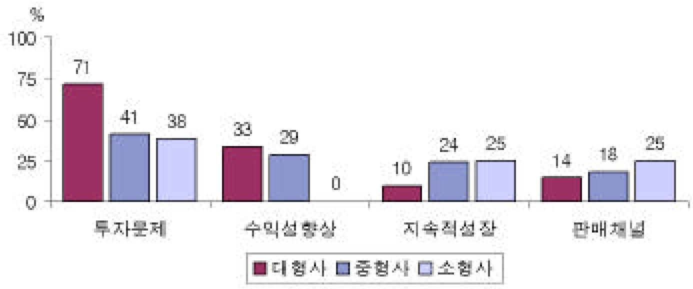
o 한편, 소형사의 경우 사업비 관리, 투자문제, 지속적 성장, 판매채널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보험사 그룹별 주요 현안과제

(단위 : %)

구 분	전체	회사그룹별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투자문제	54	71	41	38
수익성 향상	26	33	29	0
지속적 성장	17	10	24	25
판매채널	17	14	18	25
전략의 수립 및 이행	13	14	12	13
사업비 관리	13	5	6	50
법률 및 규제	9	10	6	13
상품 개발	7	5	6	13
판매력 향상	7	5	6	13

<그림> 보험사 그룹별 현안과제



<투자문제(investment performance)>

투자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상품 투자 포트폴리오 변경

□ 1990년대 전통적인 생명보험 시장은 정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생명보험의 저축성 부문에 있어서의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됨에 따라, 최근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생명보험상품에서 투자상품 판매로 전환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데 관심을 보임.

o 이에 따라, 많은 보험회사는 변액생명보험 및 변액연금과 같은 변액상품 판매에 치중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주식시장에의 참여와 위험에 대한 보장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주가가 절정에 달하면서 변액보험 상품 판매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o 투자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저금리 등의 현상은 보험회사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보험회사의 일반 계정 부문에서 주식시장에의 투자 비중이 낮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회사의 부채 수준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생명보험회사들은 불안한 실정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변액보험의 판매가 정체되고 있음.

<수익성 향상(profitability)>

경제환경, 산업내 경쟁구도 등이 수익성 향상의 영향요인으로 작용

□ 보험회사에 있어서 수익성은 주식 및 채권시장, 투자자 성향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환경은 보험회사의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o 수익과 관련한 또다른 중요한 사실은 다른 보험회사들은 그들의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즉 산업내 경쟁환경과 관계가 있음.

o 실제로 적극적인 경쟁적 시장에서 수익성도 높게 나타난다고 함.

수입증가, 사업비 절감 및 유지율 제고 등으로 수익성 향상 도모

□ 회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은 소득의 증가 또는 사업비 절감이며, 소득의 증가는 판매수입 또는 투자수익의 향상으로 비롯됨.

o 취약한 경제 환경으로 투자수익에 의존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며, 이와 더불어 생명보험에 있어서 판매 증가는 미래의 부채로 적립되어야 할 금액 때문에 잉여금 감소를 초래함.

□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계약유지율을 높이는 것으로 실제로 몇몇 CEO들은 유지율 제고방안이 현재의 시장환경 하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밖에도 사업비 관리도 중요시 되고 있음.

<지속적 성장(Growth)>

안정적 수익을 기반으로 지속적 성장 추구

□ 많은 보험회사에서는 단위 비용의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은 수익성 향상으로부터 유래함.

□ 흥미롭게도 특정 보험종목이 성장함에 따라, 전체적인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초래하는 종목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함.

o 저금리 기조의 영향을 받는 종목은 연금 상품으로서, 수익창출을 위해 다른 종목에 대한 마케팅, 판매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o 생명보험회사에서도 특정 종목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안정한 주식시장 하에서 변액생명보험 판매가 성장하고 있다는 응답은 없었음.

o 1990년대에는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변액생명보험 및 변액연금의 경우 높은 판매율을 나타내었고 경쟁 또한 치열하였으나, 최근의 경기 침체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위험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고 있음.

<판매채널(Distribution)>

사업비관리 측면에서 판매채널에 대한 지속적 고찰 필요

□ 판매채널은 CEO들이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과제이며, 전속 판매채널의 높은 비용은 보험중개사 및 대체 판매채널을 활성시키고 있음.

o 그러나 최근의 경제환경 하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음.

□ 일부 CEO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 대리점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CEO들은 대부분 독립대리점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음.

□ 판매채널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채널을 통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임.

o 전속대리점은 고비용 채널인 반면 몇몇 회사에는 여전히 비용을 능가하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o 한편, 독립대리점은 상품판매를 통해서만 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비용측면에서 매력적임.

□ 회사는 판매비용을 절감,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판매채널과의 관계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대체 판매채널과의 관계 추진에 주력하여야 할 것임.

o 최근 직접판매, 은행, 기타 소매점과 같은 대체 판매채널은 전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음.

(조혜원 선임연구원)

3. 캐나다, CI보험 판매동향

캐나다 CI보험 지속적 성장

□ 2001년 LIMRA(Life Insurance Marketing & Research Association)연구에 따르면 치명적 질병보험(CI : Critical Illness Insurance) 판매가 2001년 11%가 성장했으며 장애보험으로부터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음.

o 이러한 판매증가는 전문모집인(career agents)의 생산성 향상에 주로 기인함.

□ 개인 CI보험 신계약 판매건수는 전년도의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1년 개인 장애보험(DI : Disease Insurance)판매의 60%에 상당하는 것임.

o CI보험의 신계약은 2001년 전년도보다 107% 증가한 41,638건이었으며 신계약의 연간화보험료와 보험급부금액은 각각 111%와 118% 성장함.

o LIMRA의 조사에서 장애보험의 2001년 신계약건수는 단지 9% 증가한 66,774건이었으며, 신계약 연간화보험료는 단지 5% 증가한 반면, 새로운 장애보험 판매에 대한 월 보험급부는 6%감소했음.

□ 2001년 CI 보험을 판매하는 전문모집인은 지난해 독립모집인보다 높은 생산성을 나타냄.

o 전문모집인 채널을 통해 판매된 평균 계약규모는 2000년 71,362달러보다 44%증가한 103,121달러를 나타내었으나, 독립모집인은 91,894달러에서 6% 감소한 86,337달러임.

□ LIMRA 갱신상품을 판매하는 캐나다의 16개사, 유기평준보험료 상품을 판매하는 15개사, 그리고 종신상품을 판매하는 11개사 등, 총 16개 보험사의 CI보험판매에 대한 2003년 조사에 의하면 2003년 1/4분기 총 CI보험판매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o 지난 분기에 비해 보험료는 81%, 가입금액은 66% 증가했으며, 계약건수는 63% 증가함.

건수 기준으로 유기평준보험료 상품이 가장 높은 M/S 시현

□ 갱신보험상품이 보험료 또는 가입금액기준으로 여전히 시장의 상당 비중을 차지고 있지만 계약건수기준일 경우 유기평준보험료상품이 시장의 45%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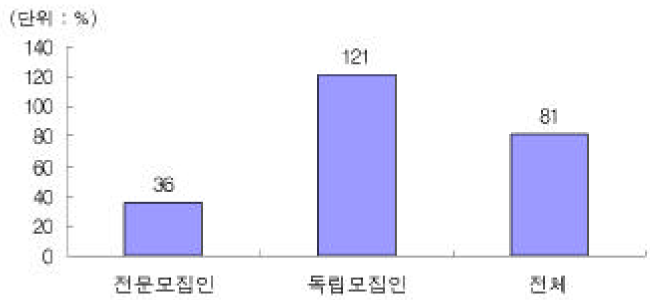
o 작년 동기 유기평준보험료상품의 M/S는 30%로서 분기 평균 가입금액은 1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음.

□ 만기보험료반환특약의 판매는 10개 보험사의 경우 분기 129%가 증가하였으며, 67%의 신계약에 이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됨.

□ 보상되는 범위에 따른 계약건수를 보고한 14개 회사중에 99%는 6가지 이상의 치명적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음.

o 신계약중 오직 1%만 5개 이하의 질병에 대한 기초보상(심장마비, 뇌졸중 또는 암을 포함) 계약이었음.

2003년 판매채널별 연간화보험료(신계약) 성장률



<전체 CI보험 실적>

2003년 CI보험은 보험료 81%, 건수 62% 성장

개인 CI보험 판매(2003. 3.31)

(단위 : 달러, %)

		연간화보험료		급부액		계약건수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갱신	신계약	7,621,187	112%	804,117	57%	6,694	66%
	보유계약	48,296,521	66%	6,644,355	60%	57,097	54%
유기	신계약	6,697,670	63%	597,860	77%	7,258	56%
	보유계약	48,574,227	68%	4,311,600	72%	57,829	69%
종신	신계약	2,843,920	57%	192,178	67%	2,101	77%
	보유계약	25,429,420	58%	1,697,531	58%	18,576	57%
합계	신계약	17,162,777	81%	1,594,155	66%	16,053	62%
	보유계약	122,310,168	65%	12,653,486	64%	133,502	61%

상품별 계약특성

(단위 : 달러, %)

		1,000당 보험료		평균계약규모		건당보험료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갱신	신계약	9.48	35%	120,125	-5%	1,139	28%
	보유계약	7.27	4%	116,370	4%	846	8%
유기	신계약	11.20	-8%	82,373	14%	923	5%
	보유계약	11.27	-2%	74,558	2%	840	-
종신	신계약	14.8	-6%	91,470	-5%	1,354	-11%
	보유계약	14.98	-	91,383	1%	1,369	1%
합계	신계약	10.77	9%	99,300	2%	16,054	11%
	보유계약	9.67	1%	94,781	2%	133,502	3%

2003년 상품별 시장점유율(신계약)

연간화보험료	가입금액	건수
44%	50%	42%
39%	38%	45%
17%	12%	13%

2003년 보험료 반환 특약

구분	건수	성장률
갱신	2,458	237%
유기	2,567	62%
종신	522	388%
합계	5,547	129%

<전문모집인 판매실적>

전문모집인을 통한 판매는 보험료기준 36% 성장

2003년 개인 CI보험 판매

(단위 : 달러, %)

구분	연간화보험료		급부액		계약건수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갱신	1,302,269	6%	230,745	-3%	1,863	19%
유기	629,741	70%	47,064	73%	922	52%
종신	974,127	79%	73,175	76%	1,058	104%
합계	2,906,137	36%	350,984	15%	3,843	43%

상품별 계약특성

(단위 : 달러, %)

구분	1,000당 보험료		평균계약규모		건당보험료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갱신	5.64	9%	123,857	-18%	699	-11%
유기	13.38	-2%	51,046	14%	683	12%
종신	13.31	2%	69,164	-14%	921	-12%
합계	8.28	18%	91,331	-20%	756	-5%

2003년 상품별 시장점유율(신계약)

구분	연간화보험료	가입금액	건수
개인	45%	66%	48%
유기	22%	13%	24%
종신	33%	21%	28%

<독립모집인 판매실적>

독립모집인 을 통한 판매는 보험료기준 122% 성장

2003년 개인 CI보험 판매

(단위 : 달러, %)

구분	연간화보험료		급부액		계약건수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갱신	6,216,162	178%	559967	120%	4662	104%
유기	5,113,242	73%	470,154	91%	5,278	65%
종신	933,801	177%	66,693	184%	596	188%
합계	12,263,205	122%	1,096,814	109%	10,536	85%

상품별 계약특성

(단위 : 달러, %)

구분	1,000당 보험료		평균계약규모		건당보험료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금액	성장률
갱신	11.1	27%	120113	8%	1333	36%
유기	10.88	-10%	89078	16%	969	5%
종신	14	-3%	111901	-1%	1567	-4%
합계	11.18	6%	321092	13%	3869	20%

2003년 상품별 시장점유율(신계약)

구분	연간화보험료	가입금액	건수
갱신	51%	51%	44%
유기	42%	43%	50%
종신	7%	6%	6%

<참고>

* 유기(Limited Period Level) - 보통 65 혹은 75까지, 일정연령까지의 평준보험료

* 종신(Permanent) - 종신 혹은 100세까지 평준보험료

* **연간화보험료**(Annualized Premiums) - **계약이 일년간 보유계약으로 남아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불할 것으로 기대되는 총보험료**. **즉**, **계약이 발행되는 시점의 보험료지급방식에 따라** 6**개월납 보험료의** 2**배**, 3**월납보험료의** 4**배**, **또는 월납보험료의** 12**배임**. **특약보험료와** CI**계약과 관련된 급부가 포함됨**.

* **보험료반환특약**(Return of Premium Rider) - **계약의 만기시 또는 특정계약응당일에 기납입보험료의 대부분 또는 전부에 대한 반환을 대비한 추가비용급부**

(**김진억 선임연구원**)

4. EU, 금융시장통합 관련 법률환경변화

EU금융시장 2005년 통합 예정
FSAP 추진중

□ 오랫동안 EU 금융시장의 통합이 진행되어 왔으나, 법적 · 제도적 조화 미흡, 세제 차이 등을 이유로 시장통합이 지연되어 왔음.

□ 현재 EU는 "금융시장 제도정비 5개년 계획(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 : FSAP)"을 추진중이며, 2005년까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FSAP내에 포함된 관련 법안이 2003년말 채택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러한 EU의 법률 환경변화에 따라 향후 수년간 금융서비스 산업의 일대 혁신이 예상됨.

o FSAP로 인해 개정되는 보험 관련 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생명보험지침(Life Insurance Directive)

- 지급여력제도(Solvency Ⅱ-Prudential Regulation)

- 보험중개기관지침(Intermediation Directive)

<생명보험지침(Life Insurance Directive)>

생명보험지침, 회원국간 조화로운 규칙 도모 목적으로 개정

□ 2002년 11월 5일 EU의회에서는 EU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화로운 규칙의 발전을 목적으로 기존 생명보험지침을 개정한 2002/83/EC 지침을 통과시켰음.

o 동 지침은 보험계약 이전과 계약기간동안 소비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요약하는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화하였으며, 법안의 입법 결과 상품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지급여력제도 변경 및 2004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보험보증기금(guaranteed fund) 인상(8십만 유로에서 3백만 유로로 상향 조정)이라는 두가지 주요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소비자 보호 강화

최소통합 상호허가의 원칙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 단일 보험시장의 출범은 각 국가별로 상이한 사업형태 및 상품으로 인한 충돌이 예상됨에 따라 생명보험지침은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o 최소 통합의 원칙(the principle of minimum harmonisation)

: 상호 영업허가 인정 및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은 기본적, 필수적인 통합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o 상호 허가의 원칙(the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 보험회사가 자국의 공인된 영업 허가로 EU 전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최소한의 지불능력(solvency capacity) 수준 제시

o 높은 클레임 발생시에도 소비자에게 지불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게 충분한 재무능력을 보유케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동 지침에서는 보험회사의 최소한의 지불능력(solvency capacity) 수준을 제시하고 있음.

□ 계약철회기간/청약철회기간 중 소비자 보호 명시

o 생명보험 계약철회기간(cancellation period) 또는 청약철회(cooling off) 기간동안에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 보장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통지후 14 30일임.

□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o 동 지침은 보험계약기간 또는 계약이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개략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강화하였음.

o 즉, 계약 이전에 보험회사는 회사의 명칭과 법적 형태, 위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더 나아가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즉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o 보험계약기간 동안에도 보험회사 및 상품과 관련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야 함.

□ 보험료 및 준비금 산출에 대한 정보 제공

o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보험료 산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회원국들의 입법으로 소비자들은 준비금 산출방법 및 보험가격 산출 기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지급여력 및 보험보증기금

지급여력제도 변경 및 보험보증기금 상승 예정

□ EU 전역에 걸쳐 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영업허가제의 도입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최저 수준의 지급여력과 보증기금을 준수할 것을 요구함.

o 보험회사는 향후 클레임 지급 및 일반 사업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준비금 적립이 요구되고 있음.

o 이에 따라, 2004년에는 보험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급여력제도의 변경 및 보험보증기금 수준의 상승 등 2가지 변화가 예정되어 있음.

□ 지급여력제도 변경

o 지급여력제도가 이하의 Solvency Ⅱ와 같이 개정되며, 지급여력 산출에 있어서의 주요 변동사항은 지급여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익 부분을 2009년까지 제외시킨다는 것임.

□ 보험보증기금(guaranteed fund) 수준 인상

2003.1월 보증기금, 300만 유로로 증가

o 보험회사의 보증기금은 지급여력 요구 수준의 1/3임.

o 현재 보증기금의 최소 수준은 80만 유로이나, 2003년 1월부터 3백만 유로로 증가함.

o 향후 보증기금은 Eurastat에서 공표하는 유럽 소비자가격지수(the European index of consumer prices)의 변동을 감안하여 조정할 것임.

□ 새로운 지급여력 제도의 도입은 보험회사의 높은 비용 부담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나, 모든 보험회사는 법정자본금 및 지급여력 요구 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 동 지침의 적용에 앞서, EU 위원회 및 회원국에서는 최저 보증기금 수준의 상승이 소규모 보험회사(특히, 상호회사)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고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o 제도가 단기간내 신속히 도입될 경우, 소규모 회사의 경우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일정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소규모 회사(상호회사 포함)에게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함.

o 지급여력 요구 수준을 준수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EU 전역에서의 영업을 허가하는 "단일 허가증(single passport)"을 부여하지 않음.

<지급여력제도(Solvency II - Prudential Regulation)>

□ 보험은 예상치 못한 미래의 사고(기대치를 초과하는 클레임의 발생, 저조한 투자수익 등)를 담보하는 리스크 관리사업으로서 수리적으로 적절한 준비금 적립이 필요함.

측정방법의 일관성, 거대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지급여력제도 개정

o 지급여력제도는 이와 같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양적, 질적 측면의 조화를 도모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Solvency Ⅱ에서는 현행 EU의 지급여력시스템의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RBC시스템의 활용, 은행산업에 기초한 지급여력시스템의 도입, 내부 리스크 모델의 사용, 재무보고서와 감사보고서와의 연계 등을 통한 새로운 지급여력시스템을 고안하고자 함.

□ 새로운 지급여력시스템은 목표자본금 및 최저자본금 등의 재무능력(financial resources), 관리감독(supervisory review) 및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의 세가지 측면에 기초하고 있음.

o 첫째, 재무능력 측면이란, 일반적으로 위험기준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의 최저요구자본금(minimum capital requirements)은 재무보고서상의 자산, 부채, 언더라이팅 정보에 의해 평가한다는 것임.

o 둘째, 관리감독 측면은 위험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성 평가에서는 위험도, 내부리스크 모델, 기술설비 및 자산 평가, 경영의 적정성, 자산/부채의 부조화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야 함을 나타냄.

o 셋째, 시장규율 측면에서는 권고사항 및 요구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로 하여금 청약의 범위, 자본, 리스크 평가 및 관리절차, 보험 인수시 자본 적정성 등의 정보 등을 평가하게 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결과적으로 측정의 일관성, 거대 리스크 관리 등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시스템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일관된 시스템 도입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회원국간의 요구자본금이 상이한 결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임.

<보험중개기관지침(Directive on Insurance Mediation)>

보험중개기관지침에 따라 판매채널 통합관리

□ 2002년 12월 9일 2002/92/EC 지침의 도입은 EU 전역에서의 보험판매채널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지침에서는 보험산업에 있어서 대리점(agents), 중개사(brokers) 및 방카슈랑스 사업자(bancassurance operator) 등 다양한 형태의 판매채널을 인가, 관리하고 있음.

o 따라서, 동 지침의 관리 대상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의 공평성, 소비자 보호 등이 보증됨.

□ 동 지침은 전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판매채널, 즉 전문 보험중개기관에게 적용되며, 부수적 업무로 보험중개업을 수행하는 파트타임 중개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o 전문/전속 중개기관은 자국내에서 영업허가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몇몇 국가에서는 전문 중개기관에 대한 적절한 등록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동 지침에서는 중개기관을 보험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의 보험중개기관(insurance intermediary)과 1개사 또는 그 이상의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중개활동을 수행하는 전속보험중개기관(tied insurance intermediary)으로 구분함.

※ 전문 보험중개기관에 대한 자격 요건

전문보험중개기관의 자격요건 명시

□ EU에서의 영업을 원하는 중개기관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전문적 요구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EU 국가들은 이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o 즉, 전문 보험중개기관은 적정 수준의 전문 자격과 훌륭한 명성이 요구되며, 업무태만/과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요구됨.

o 이러한 요구조건은 전문 중개기관으로 하여금 교육훈련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증기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영경비를 상승시키게 될 것임.

※ 소비자 보호 조항

중개기관 관련 소비자보호조항 및 정보제공의무 규정

□ 동 지침에서는 중개기관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항을 약술하고 있음.

o 법률 또는 약관에 의해 소비자가 중개기관에 납입한 금액(보험료)은 보험회사에 납입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보험중개기관의 재정적 지급여력을 연간 수입보험료의 4%, 최저 15,000 유로로 할 것을 규정함.

o 소비자의 돈은 고객 계정으로 엄격히 분리되어야 하며, 기업도산시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없음을 규정함.

o 보험보증기금의 인상을 규정하고 있음.

□ 몇몇 회원국에서는 이러한 재무적 보증을 전문 중개기관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의 수행은 이러한 조항을 준수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중개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동 지침은 소비자 고충처리방안 마련, 보험중개기관과 소비자간의 중개 등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음.

※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 보험중개기관은 보험계약 이전에 소비자에게 적어도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o 신원확인 및 주소

o 중개기관의 등록 사실 증명

o 보험중개기관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의결권과 자본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

o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모회사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중개기관의 의결권과 자본의 1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

o 보험/ 재보험중개기관에 대한 고충 처리 절차

□ 이와 같이 유럽 금융서비스 단일 시장의 출범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수개의 시장 통합을 위한 추가적 지침 마련이 요구됨.

o 시장 통합에 있어서의 장해요인은 이러한 지침으로부터 발생하게 될 것이며, 중개기관이 직면하게 될 전문적 자격요건 및 재무적 보증기금 등에 의해 추가적 부담을 지게 될 것임.

(조혜원 선임연구원)

5. 영국, 강화된 지급여력제도 및 개별자본적정성제도

<개요>

강화된 지급여력제도(ECR)와 개별자본적정성제도(ICAS) 도입 예정

□ FSA(영국의 금융감독청)는 손해보험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지급여력제도(ECR: Enhanced Capital Requirements)와 개별자본적정성제도(ICAS: Individual Capital Adequacy Standards)의 주요한 틀을 구상하고 있음.

o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해 시장의 신뢰 확보와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 보호를 충실히 달성하고자 재무건정성 감독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o IMF의 신BIS협약(안), 미국의 RBC제도 및 EU의 Solvency II의 영향으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되는 최소지급여력제도와 개별자본적정성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됨.

현행 최소지급여력제도는 리스크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함

□ 손해보험회사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의 자본을 유지해야 함.

o 현재의 최소지급여력제도는 최소지급여력비율 수준이 낮고 또한 리스크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의 지급여력제도는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여 최근 20년 동안 영국의 손해보험회사들의 파산율이 높아짐.

o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는 좀 더 투명한 제도로서, 파산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규제개입 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질 것임.

- 이는 리스크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자본과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할 것임.

□ ECR과 ICAS제도는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를 통해 시장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 본 자료는 영국 FSA의 "*Enhanced capital requirements and individual capital assessment for non-life insurers*"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임.

o 사업특성과 시스템, 통제환경에 관련된 리스크에 대응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해야하는 자본수준 점검

o 최소지급여력 산정의 투명성 제고

o 리스크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과 유인책 제공

<강화된 지급여력제도(ECR)>

☐ 강화된 지급여력제도(ECR) 도입.

o ECR제도는 리스크기준으로 최소지급여력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자산과 부채의 리스크 즉, 금리리스크, 보험리스크 뿐만 아니라 신용 및 운용리스크까지 반영하고 있음.

o 이는 새로운 바젤협약의 내용 중 첫 번째 근간인 최소자기자본제도를 한층 강화하여 보험산업에 적용한 것임.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리스크기준 지급여력제도로의 이행

☐ ECR제도의 도입 목적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 프로파일을 반영하는 자본수준을 보유하도록 하는 리스크기준 지급여력제도로 이행하는 것임.

o 즉, 보험회사가 ECR도입을 통해 지급불능이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적정자본수준을 보유하도록 하는 데 있음.

o ECR제도의 구체적 목적은 사업리스크와 통제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임.

- 사업리스크는 시장·신용·운영·법규리스크, 재무건정성, 전략, 소비자·상품·서비스특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포함함.

- 통제리스크는 마케팅·판매 및 자문실무, 시스템 및 내부통제, 조직, 이사회·경영진 및 스탭과 관련된 리스크를 포함함.

☐ ECR은 자산, 보험(책임준비금), 순보험료부분으로 나누어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

총 ECR은 자산, 보험, 순보험료 부분으로 나누어 산정

총ECR = 자산가치 * 자산계수(%) + 보험가치 * 책임준비금계수(%)
+ 순보험료 * 보험료계수(%)

o 자산가치는 규제자산으로서의 인정여부와 가치평가 후에 산정됨.

o 보험가치는 보험종목별 책임준비금의 합으로 산정됨.

- 책임준비금은 지급준비금(재보험환급금제외), IBNR, 미경과보험료적립금(미상각신계약비제외), 비상위험준비금 등으로 구성됨.

o 순보험료는 수수료공제전 순보험료로서, 출재재보험료를 제외한 값으로 산정됨.

□ ECR에서 인정하는 자본항목은 최소지급여력비율에서 지급여력항목에 다음과 같은 항목 등이 추가됨.

o 균등화준비금(Equalization reserves)은 현재의 최소지급여력제도(MCR)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ECR의 지급여력기준 차감항목으로 포함됨.

o 부채에 대한 시간가치할인 금액은 ECR 산정시 차감항목임.

o 감독규정에서 인정하지 않은 자산은 자본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ECR계산결과는 적정자본수준에 대한 개별자본지침(ICG)을 제공하기전에 보험회사의 자가 자본적정성을 점검할 때 중요한 자료로 이용됨.

재무건전성 비율규제를 보완

o FSA는 ECR결과를 토대로 개별보험회사에 대한 개별자본적정성지침(ICG)에 포함될 내용을 작성할 것임.

<개별자본적정성제도(ICAS)>

□ 개별자본적정성제도(ICAS) 도입

o FSA가 새로운 바젤협약의 내용 중 두 번째 근간인 감독기능의 강화를 보험산업에 적용한 것임.

o FSA는 보험회사의 개별 사업과 통제 리스크를 고려한 적절한 자기자본 개념과 개별자본지침(ICG)을 제공하고자 함.

o 보험회사는 자사의 적정 지급여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과 조직 및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함.

ICAS제도를 통해 보험회사 자본적정성 점검 및 감독

□ FSA는 보험회사의 자율적 자본니드 평가를 점검 · 감독하는 개별자본적정성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o FSA는 ICAS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평가와 감독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자본수준을 고려하고자 함.

o 또한 FSA는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보험회사에게 제공하고자 함.

□ 보험회사는 ICAS제도하에서 자사가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한 재무적 자원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과 업무절차를 보유해야 함.

o 보험회사는 보유해야할 재무적 자원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리스크의 주요 원천(source)을 확인해야 함.

o 보험회사는 확인된 각각의 리스크의 성격에 적합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함.

□ 각 보험회사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프로파일(Risk profile)이 달라, 개별자본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함.

o 사업리스크 요인(Business risk factors)

o 통제 리스크 요인

□ 보험회사는 자사의 리스크평가프로세스를 통해서 개별자본지침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주요 사항을 포함하고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함.

o 각 보험회사의 ECR산정치는 FSA가 개별자본지침서를 제공하기 전에 고려해야하는 중요한 요소임.

o 보험회사의 리스크평가프로세스가 개별자본지침서수준에 부합할수록 FSA가 보험회사의 개별자본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준은 낮아질 것임.

<파급 효과>

최소지급여력비율 강화·재무건전성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 제고·시장규율의 강화

□ 리스크 민감형 지급여력제도와 개별자본적정성제도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임.

o 보험감독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리스크-민감형 지표 제공을 통해 경영상태, 시스템, 통제환경과 관련된 리스크에 상응하여 보유해야하는 적정지급여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o ECR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가 보유해야할 지급여력수준은 현재의 최소지급여력수준보다는 높아질 것임.

o ICAS제도는 기업이 보유해야할 적정한 규제자본의 수준 평가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시켜 경영진의 리스크에 대한 인식 제고와 리스크 관리 수준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임.

□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 제고

o ECR제도와 ICAS제도의 프레임(Framework)은 리스크중심 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감독자원을 감독당국이 목표로 하는 리스크에 좀 더 효율적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임.

□ 시장규율의 강화

o ECR제도과 ICAS제도는 공시제도의 강화를 통해 보험산업의 투명성과 이해 증진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신동현 연구원)

6. 일본, FY2002 보험산업 실적 분석

일본 생명보험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 2년 연속 감소 등 정체상태 지속

□ FY2002 일본 보험산업은 손해보험의 실적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는 등 생명보험의 정체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o 생명보험에서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이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손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및 주요 경영효율성 지표가 다소 개선되었음.

□ FY2002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집계한 42개 생명보험사의 실적은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보험수지차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체현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o 신계약금액은 개인보험의 경우 전년대비 5.7% 감소한 120조 710억엔(전환계약 포함)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단체보험도 전년대비 14.5% 감소한 14조 1,881억엔으로 집계됨.

- 2002년 10월부터 은행의 창구판매 확대조치에 따라 개인연금의 신계약 금액이 37.3%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으로 개인 및 단체보험의 신계약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o 개인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보장내용 축소를 위주로 하는 전환계약의 증가에 따라 보유계약금액이 1,210조 2,444억엔(전년대비 -3.6%)으로 집계되어 6년 연속 감소함.

- 단체보험의 경우 보증이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금리 경쟁력이 있는 타 금융기관으로 자금 유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0% 감소한 396조 6,559억엔을 기록함.

o 총자산은 신계약 및 수입보험료의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한 184조 3,709억엔을 시현하였으며,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6% 감소한 25조 5,118억엔으로 나타남.

반면, 신설사 및 외국계 생보사 수입보험료 등 성장세

- 성숙단계에 접어든 일본의 생명보험산업은 수입보험료가 FY1988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출산율 저하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보험수요의 감소와 전환계약 등을 통한 보장내용의 재구축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손해보험 계열 생보사와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제3분야보험의 성장과 방카슈랑스 도입에 의한 변액연금의 시장확대로 수입보험료 및 신계약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o 사업비는 중대형보험사의 경우 영업직원수를 전년대비 2.8%(상위10사) 감축하는 등 사업비 절감을 통한 효율성 증대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4.3% 감소하였음.

<표 1> FY2002 일본 생보사의 사업실적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자 산		1,917,305	7.3	1,843,709	-3.8	1,798,311	-2.5
수지상황	수입보험료	269,406	3.1	261,859	-2.8	255,118	-2.6
	보험금	138,586	-3.5	143,358	3.4	139,491	-2.7
	해약환급금	98,309	-7.2	140,173	42.6	70,557	-33.4
	배당금	14,915	8.0	11,537	-22.6	-	-
	사업비	38,089	7.9	37,563	-1.4	35,951	-4.3
	보험수지차	-20,493	45.5	-70,772	-245.4	-	-
당기순이익		3,171	-	3,961	44.2	2,274	-42.6
자산운용수익		58,683	-25.7	57,364	-2.3	56,309	-1.8
자산운용수익률		2.31	-0.07p	2.29	-0.02p	2.23	-0.06p
역마진 금액		13,142	-6.1	13,663	4.0	11,723	-14.2
기초이익		22,147	-9.4	22,611	2.1	21,496	-4.9

주 : 파산회사는 당해연도에 제외되었으며, FY2003는 잠정집계 수치임.
자료 : 일본 생보협회(www.seijo.or.jp), インスウアランス(生保版) 2003.7.3

o 일본 금융청이 FY2000부터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기초이익은 이차손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차익과 비차익 규모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4.9% 감소한 2조 1,496억엔을 나타냄.

* FY2002의 이원별 손익규모 : 사차익 7,897억엔(FY2001 이하생략)→7,039억엔, 비차익 27,087억엔 → 28,908억엔, 이차손 15,198억엔→12,978억엔

* 기초이익은 당해 사업년도의 보험수지 및 이자수입 등의 수익을 합산한 개념이며, 일본에서는 이차 · 사차 · 비차 · 기타손익의 합계액과 유사한 개념으로도 사용됨.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 흑자전환 및 경영개선

□ FY2002 일본 손해보험사(24개사)의 실적은 수입보험료의 증가 및 경영효율성 지표의 개선으로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이 다소 개선되었음.

o 경상수익은 보험영업수익이 9조 2,515억엔, 투자영업수익이 5,679억엔, 기타 경상수익이 503억엔으로 전년대비 1,450억엔 감소한 9조 8,697억엔임.

o 경상비용은 보험영업비용이 7조 8,655억엔, 투자영업비용이 4,487억엔, 영업비 및 일반관리비가 1조 3,256억엔, 기타 경상비용이 368억엔으로 전년대비 4,660억엔 감소한 9조 6,726억엔임.

o 이 결과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3,211억엔 증가한 1,971억엔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부동산 및 동산처분 손익 등의 특별손익을 가감한 세후 당기이익은 전년도의 1,548억엔 적자에서 2,347억엔 증가한 799억엔 흑자를 기록함.

o 총자산은 적립형보험에서의 지속적인 손실과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주식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전년대비 8.5% 감소한 30조 3,033억엔을 기록함.

o 총자산 중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금액은 27조 1,673억엔으로 전년대비 8.5% 감소하였는데, 효율적 자산운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정책으로 인하여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은 전년대비 709억엔 감소한 5,069억엔으로 나타남.

<표 2> FY2002 일본 손보사의 사업실적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자 산	343,042	13.5	331,205	-3.5	303,033	-8.5
원수정미수입보험료	90,167	-1.5	88,305	-2.6	89,987	0.8
정미수입보험료	67,853	0.2	68,118	0.4	72,859	7.0
보험금	37,196	-0.1	36,998	-0.5	36,518	-1.3
이자 및 배당금 수입	6,193	-17.2	5,777	-6.7	5,069	-12.3
사 업 비	25,648	-2.8	25,355	-1.1	25,136	-0.9
보험인수이익	474	-63.7	-1,492	-414.8	1,505	200.9
경상이익	3,304	2.3	-1,240	-137.5	1,971	259.0
당기순이익	1,036	4.2	-1,548	-249.4	799	151.7
손해율	59.6	0.3p	59.2	-0.4p	54.7	-4.5p
사업비율[1)]	37.8	-0.8p	37.1	-0.7	34.5	-2.6p
합산비율	97.1	-0.8p	96.2	-0.9p	89.2	-7.0
자산운용수익률	2.3	-0.35p	2.2	0.1p	-	-

주 : 1) FY2001 일본 손해보험협회에 가맹된 24개 손보사의 실적임.
2) 사업비(율)은 손해조사비가 제외된 수치임.
3) 일본에서는 정미수입보험료를 「원수정미보험료 - 재보험관련 보험료- 적립보험료」의 개념으로 사용함.

자료 : www.sonpo.or.jp

수입보험료 증가는 자배책 정부 재보험 폐지가 주요인

o 보험인수 현황을 보면 적립보험료를 포함한 원수정미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0.8% 증가하여 증가세로 전환하였음.

- 반면, 원수정미수입보험료에서 재보험을 가감하고 적립보험료를 차감한 정미수입보험료는 화재, 특종, 해상보험의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7.0% 증가한 7조 2,859억엔으로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원수정미수입보험료의 증가는 개인보험의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부터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정부재보험 폐지의 영향으로 자배책 수입보험료가 20.7%나 급증하였기 때문임.

o FY2002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480억엔(1.3%) 감소한 3조 6,518 억엔이며, 손해율은 전년대비 4.5%p 개선된 54.7%로 2년 연속 증가하였음.

- 손해율의 감소는 수입보험료에서 41.6%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차량도난사고가 감소하고,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FY2002 손해보험사업 실적을 사업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 및 손해율 등의 주요지표가 FY1997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손해보험산업이 5년전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음.

o 5년전과 비교한 결과 사업비율의 경우 손보사들의 사업비 절감을 통한 수익위주 경영으로의 전환으로 4.7%p 개선되었으나, 정미수입보험료의 1.0% 증가, 지급보험금이 3.3% 증가, 손해율이 1.2%p 증가하였음.

<표 3> **FY2002/FY1997 일본 손보사의 주요지표**

(단위 : 억엔, %)

구　분	FY1997	FY2002	증가율
정미수입보험료	72,154	72,859	-5.8
지급보험금	35,364	36,517	6.0
손해율	53.5	54.7	6.4
사업비율	39.2	34.5	-2.0
합산비율	92.7	89.2	4.4

주 : 사업비는 손해조사비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 www.sonpo.or.jp

(이상우 선임연구원)

7. 일본, 생명보험 예정이율 인하제도 도입과 영향

일본, 보험업법 개정에 의한 기존계약에 대한 파산전 예정이율 인하제도 8월 24일부터 시행

□ 일본 금융청은 초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생보사 역마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검토하였던 기존계약의 예정이율 인하 제도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금년 8월 24일부터 시행하였음.

- o 동 제도는 향후 보험사의 경영악화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보험사의 이해당사자가 자율결정에 따라 기존계약에 적용된 예정이율을 최저 3%까지 인하할 수 있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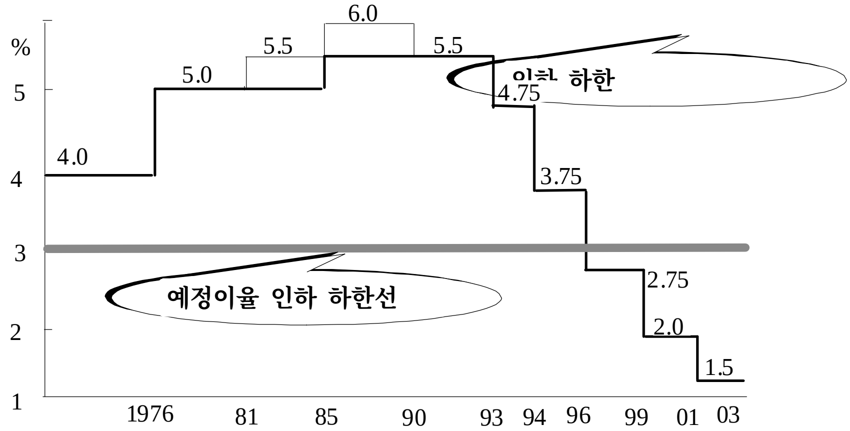
<기존계약의 예정이율 인하 제도 도입 배경과 추진과정>

□ 일본의 생명보험업계는 예정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을 하회하는 역마진 확대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7개 생보사가 파산하였으며, 다른 생보사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음.

1980년대 후반이후 대량으로 판매된 고금리상품으로 역마진 확대, 생보사 연쇄파산 경험

- o 거품경제기인 1980년대 후반부터 일시납 양로보험 등 고금리상품의 판매시 5% 6%의 예정이율을 약속하였으나, 초저금리 장기화 및 주식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산운용수익률(2%대)이 크게 하회하면서 역마진이 확대되었으며, 2003년 3월말 현재 1조 9천억엔에 이름(<그림 1> 참조).
- o 최근 일시적인 주식시장 회복으로 이차역마진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나 2003년 3월말 현재 3% 4%대의 평균예정이율을 부담하고 있으며, 여전히 비차익과 사차익으로 이차손을 상쇄시키는 수익구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 o 현재, 일본의 생명보험은 예금보험법의 대상이 아니라 보험업법상의 생명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부보대상이며, 파산에 의한 계약이전시 책임준비금의 90%가 보호되나 보험계약의 기초율 인하가 가능함.

<그림 1> 생보사 예정이율 인하 추이



주 : 일시납 상품제외, 96년 이후는 표준적인 이율

□ 생보업계의 반대와 국민정서상의 문제로 입법화가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지난 6월 최종적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파산전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가 8월 24일부터 허용되게 됨.

- 신보험업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대장대신의 명령에 의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파산전에 계약조건의 변경이 가능하였으나, 헌법상의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1996년 동 규정이 삭제되었음.

- 이후 1997년 4월 닛산(日産)생명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교에이(協榮)생명에 이르기까지 총 7개 생보사가 연쇄 파산하면서 보험금액이 삭감되는 등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손실을 경험하게 됨.

- 이에 금융청은 생보사의 역마진 문제를 해결하여 보험사의 파산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2000년부터 수상의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를 통하여 의견수렴과 보완을 거쳐 정책 방안을 마련함.

<예정이율 인하 적용방법 및 주요 행정 절차>

향후 10년간 수지분석 결과 파산 가능성이 있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결정

□ 금융청에 예정이율 인하 신청 및 승인

o 보험사가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때, 수지악화 개연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약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한 사유를 문서로 제시하며, 금융청은 신청을 승인한 후 필요할 경우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해약정지 명령을 시달할 수 있음.

o 보험사가 보험계약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때, 개연성과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계약조건의 변경이 부득이한 사유를 문서로 제시해야 하며, 금융청이 신청을 승인한 후 계약자보호를 위해 기한을 정하여 해약 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o 상술한 수지악화 개연성에 대해서 현재 보험업 영위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지만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채무이행이 곤란함을 합리적으로 예측한 경우로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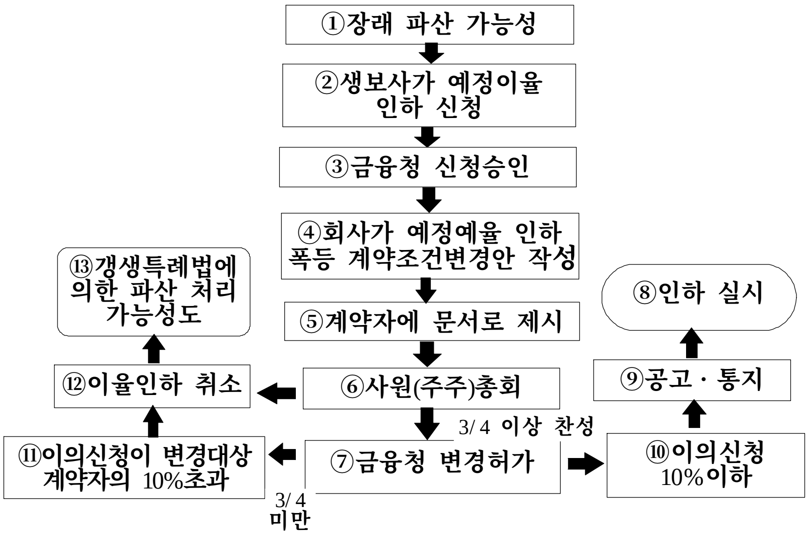
※ 합리적인 예측은 ①금리, 주가, 외환시장 등 금융경제 동향, ② 신계약 진전율, 보험계약 유지율, ③자산배분, 운용상황 등 ①, ②,③을 반영한 향후 10년간 수지분석 실시

□ 계약조건의 변경 한도와 변경 안내

o 계약조건의 변경은 변경 기준일부터 적립할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상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변경되는 예정이율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최저 3%까지 가능함.

o 보험회사는 계약조건 변경을 하려면 금융청의 승인을 얻은 후 주주총회(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주주총회 등 소집통지시에 계약조건 변경사유, 변경내용, 변경후의 업무 · 재산상황 예측, 채권자에 대한 채무취급 사항, 경영책임사항 등을 제시해야 함.

<그림 2> 예정이율 인하 변경 절차



주 : 1) ⑥주주총회의 경우 2/ 3 이상 찬성 필요
2) ③ ⑫ 해약불가

□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에 관한 특례와 보험조사인 선정

o 주주(사원)총회 특별결의는 상법(보험업법)상 정족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출석주주(사원) 의결권의 2/ 3(3/ 4)이상 다수로서 가능하며, 추후 주주(사원)총회에서 그 결의를 승인한 경우 특별결의로 간주함.

o 금융청은 승인 후 보험조사인을 선임하여 계약조건 변경내용 등을 조사시켜 보고 받을 수 있으며, 보험조사인은 보험사의 이사, 감사 및 지배인, 기타 사용인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해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 ·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금융청의 타당성 검토 및 승인후 보험계약자의 이의접수

□ 금융청의 변경승인 및 보험사의 통지, 이의접수

o 보험사는 주주(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결의된 계약조건 변경에 관해서 금융청에 승인을 신청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승인함.

o 금융청의 승인 후 2주내 계약조건 변경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계약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한 후 일정기간내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만약 대상계약자중 1/ 10 이상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또는 해당 계약금액이 1/ 10을 초과할 경우 변경이 불가함.

o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찬성한 것으로 간주 계약조건 변경을 실시함.

□ 계약조건 변경의 공고 등

○ 보험사는 계약조건 변경후, 즉시 계약조건 변경사실 등을 공고해야 하며, 계약조건 변경후 3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는 변경대상 계약자에게 변경후의 권리 및 의무내용을 통지해야 함.

<예정이율 인하 허용시 생명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

예정이율 인하시 1980년대 후반 1993년 판매된 보험상품의 손실 발생 예상

□ 일본 금융청은 예정이율 인하의 도입이 파산시보다 보험계약자에 주는 손실이 작으며, 1980년대 후반 거품경제시기에 판매된 고금리상품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o 생보사가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을 인하할 경우 보험종류 및 가입시기에 따라 상이함.

- 1996년 이후에 가입한 보험계약의 경우 예정이율이 이미 3% 미만으로 해당사항이 없고, 그 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이 대상이 되며, 1980년대 후반 1993년까지 가입한 5% 6%대의 보험계약이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예상됨.

o 상품별로는 개인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가장 긴 종신보험의 보험금액 손실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저축성상품인 양로보험이 손실이 큰 반면, 보험기간이 정해진 정기보험 및 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비교적 손실이 적음(<표 1> 참조).

<표 1> 예정이율이 3% 인하될 경우 보험금 지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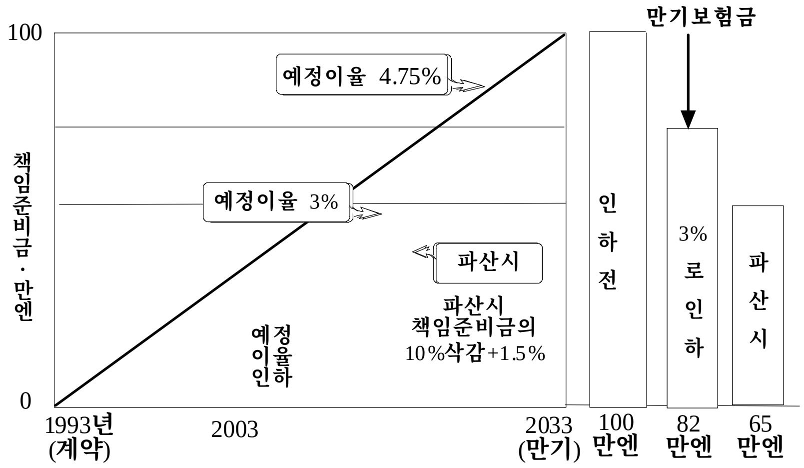
가입시기	1983년	1988	1993	1998
예정이율	5.00%	5.50%	4.75%	2.75%
종신보험	70만엔	62만엔	70만엔	100만엔
양로보험	87만엔	79만엔	82만엔	100만엔
정기보험	90만엔	92만엔	94만엔	100만엔

주 : 30세가입 30년만기 계약보험금 100만엔의 경우 보험금 지급액
자료 : 일본 금융청

o **금융청이 산출한 보험종류별 보험금액 삭감 규모는 가령 연령이 30세인 가입자가 1993년에 보험가입금액 100만엔의 양로보험에 가입한 경우 예정이율이 3%까지 인하되면 예상 보험금액이 18% 감액되는 반면, 동일조건의 정기보험의 경우 6%의 감액에 불과함.**

o **그러나 생보사가 파산할 경우 예상 보험금액은 책임준비금 10% 감액과 더불어 현재의 예정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35% 정도의 감액이 예상되므로 파산시의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예정이율 인하에 의한 보험금 손실 예상



o 한편, 감액대상이 되는 불안한 보험계약자가 해약할 경우 현재 예정이율이 1.5%이므로 예정이율 인하로 입는 보험금 손실보다 해약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커지며, 다른 생보사에 보장내용이 동일한 보험에 재가입할 경우 손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참조).

<일본 보험업계의 반응과 향후 전망>

일본 정부는 예정이율 인하 도입이 전체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효성 미지수

□ 일본의 금융청은 생보사가 파산할 경우보다 예정이율 인하를 도입하는 편이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경감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사 파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임.

o 일본 정부는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생보사의 역마진 확대 → 경영위기와 파산 → 은행 및 타 금융기관에 주식 및 채권의 대규모 손실 → 은행부실화 →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생보사의 파산방지와 손실 보험계약자의 손실 경감을 위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임.

o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면서 "법률에 정한 재산권 내용이 법률 개정 후에도 '공익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한 위헌 입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하여 생보사의 파산으로 인한 국민적 부담보다 동 제도의 도입이 '공익'에 우선되는 것으로 정리함.

생보협회는 생보사의 신뢰성 악화 등으로 대량 해약이 발생하는 등 신용불안 확대 예상

o 생명보험업계는 동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 소비자에 대한 생명보험의 신뢰성 하락, 생보사의 경영악화가 확대될 경우 대규모 해약발생으로 인한 파산가능성, 외자유치 곤란, 자율적 신청의 곤란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실효성에 대부분이 의문을 제기함.

o 또한, 최근 주가상승으로 인한 주식평가이익이 크게 확대되면서 FY2003에는 역마진 금액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생보사의 경영악화가 개선되고 있어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임.

o 그러나, 은행과 상호출자관계에서 지난해 은행 주가급락에 의한 대규모 주식평가손을 시현하여 재무건전성이 불안했던 아사히(朝日)생명과 미츠이(三井)생명의 경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누적 적자의 급증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금융불안이 확대되어 생보사들의 경영악화가 전체로 확대될 경우 개별회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체 생보사로 집단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동 제도의 도입이 향후 부실생보사의 매각 및 통합을 촉진하는 등 보험산업 재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됨.

(이상우 선임연구원)

통 계 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02		2003	
		3/ 4	4/ 4	1/ 4	2/ 4
국내총생산 성장률		5.8	6.8	3.7	1.9
경상수지		929.4	1,970.6	△1,721.3	2,570.5
	수 출	41,255	45,307	43,045	46,071
	수 입	38,884	42,262	44,207	41,689
실업률		2.8	2.9	3.6	3.3
금리	국고채(3년)	5.30	5.11	4.62	4.16
	회사채(3년)	6.00	5.68	5.38	5.46
소비자물가지수		107.4	107.9	109.8	110.5
환율	원/ 달러	1,227.80	1,186.20	1,254.60	1,193.00
	엔/ 달러	121.70	118.79	117.99	119.77
종합주가지수		646.42	627.55	535.70	669.93
외환보유고		116,690	121,413	123,825	131,660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2002				2003	
	1/ 4	2/ 4	3/ 4	4/ 4	1/ 4	2/ 4
보 험	45,044	69,225	68,236	76,573	45,805	50,356
생명보험	45,157	51,503	51,278	62,076	30,629	34,893
손해보험	-113	17,722	16,958	14,497	15,176	15,463
은 행	-15,367	17,944	92,267	138,510	23,484	73,895
일반계정	37,630	24,771	111,084	140,221	45,937	144,380
신탁계정	-52,997	-6,827	-18,817	-1,711	-22,453	-70,485
증 권	21,226	-15,865	-15,666	-2,879	35,535	-2,503
투 신	150,461	-34,535	49,664	-2,159	-80,618	-90,539
종 금	13,173	3,787	-9,672	-2,463	24,512	-61,400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한 금액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보험료	21,382	22,121	23,611	24,311	91,424	24,394
	성장률	19.7	23.5	25.9	19.0	22.0	14..1
	구성비	18.5	19.4	16.2	21.0	18.6	21.4
사망보험	보험료	50,313	52,829	54,866	55,814	213,677	56,036
	성장률	30.9	22.5	21.2	17.2	22.6	11.2
	구성비	43.6	46.4	37.6	48.2	43.5	49.2
생사혼합보험	보험료	27,687	26,869	28,877	26,959	110,392	23,465
	성장률	-16.5	-16.5	-12.4	-10.7	-14.1	-15.2
	구성비	23.9	23.6	19.9	23.3	22.5	20.6
개인보험계	보험료	99,382	101,818	107,116	107,084	415,493	103,895
	성장률	11.0	9.2	10.6	9.0	10.0	4.4
	구성비	86.0	89.4	73.6	92.6	84.7	91.1
단체보험계	보험료	16,131	12,098	38,332	8,613	75,175	10,108
	성장률	-28.5	-32.5	-8.6	-35.9	-21.6	-37.3
	구성비	14.0	10.6	26.4	7.4	15.3	8.9
전 체	보험료	115,606	113,917	145,448	115,697	490,668	114,004
	성장률	3.1	2.5	4.8	3.6	3.6	-1.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FY1999년부터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이며, FY2001 2/4분기부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2)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1/ 4	2/ 4	3/ 4	4/ 4	연간	1/ 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11,511	12,142	12,532	16,439	52,624	13,648
	증가율	-37.4	-32.4	-9.3	12.1	-18.9	18.6
	지급률	53.8	54.9	53.1	67.6	57.6	55.9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11,653	13,672	14,161	15,933	55,419	16,810
	증가율	7.0	4.3	24.4	46.4	19.8	44.3
	지급률	23.1	25.9	25.9	28.5	25.9	30.0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	21,777	22,374	24,649	35,355	104,155	33,347
	증가율	-29.8	-21.9	-21.1	39.8	-10.4	53.1
	지급률	78.7	83.3	85.4	131.1	94.4	142.1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44,941	48,187	51,342	67,727	212,197	63,805
	증가율	-25.5	-19.3	-9.0	33.2	-6.6	42.0
	지급률	45.2	47.3	47.9	63.2	51.1	61.4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19,162	14,451	31,030	17,340	81,984	15,306
	증가율	-45.9	-45.1	-20.1	10.5	-29.5	-20.1
	지급률	118.8	119.4	81.0	201.3	109.1	151.4
전 체	지급보험금	64,103	62,639	82,372	85,067	294,181	79,111
	증가율	-33.0	-27.2	-13.5	27.9	-14,4	23.4
	지급률	55.4	55.0	56.6	73.5	60.0	69.4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FY1999년부터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이며, FY2001 2/ 4분기부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ㆍ사업비증가율ㆍ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사업비	3,382	3,340	3837	3,586	14,145	3,098
	증가율	38.0	41.4	23.1	-3.9	21.3	-8.4
	사업비율	15.8	15.1	16.3	14.8	15.5	12.7
사망보험	사업비	14,051	15,205	15896	15,208	60,359	14,523
	증가율	15.8	15.7	14.7	8.8	13.7	3.4
	사업비율	27.9	28.8	29.1	27.2	28.2	25.9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1,992	1,924	2326	1,877	8,119	1,712
	증가율	-37.4	-35.0	-11.6	-21.8	-27.3	-14.1
	사업비율	7.2	7.2	8.1	7.0	7.4	7.3
개인보험계	사업비	19,425	20,468	22059	20,671	82,623	19,333
	증가율	9.4	10.8	12.5	2.8	8.8	-0.5
	사업비율	19.5	20.1	20.6	19.3	19.9	18.6
단체보험계	사업비	572	561	699	736	2,568	61.4
	증가율	1.4	-0.7	11.8	39.7	12.6	7.3
	사업비율	3.5	4.6	1.8	8.5	3.4	6.1
전 체	사업비	19,997	21,029	22758	21,407	85,191	19,947
	증가율	9.1	10.5	12.5	3.8	8.9	-0.3
	사업비율	17.3	18.5	15.6	18.5	17.4	17.5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FY1999년부터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이며, FY2001 2/4분기부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4)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3,035	804	755	910	750	3,219	825
	성장률	10.2	13.1	2.2	2.6	7.4	6.1	2.5
	구성비	1.6	1.6	1.5	1.7	1.5	1.6	1.6
해 상	보험료	5,292	1,506	1,388	1,293	1,418	5,605	1,396
	성장률	21.8	31.5	9.6	-12.6	1.1	5.9	-7.3
	구성비	2.8	3.0	2.7	2.4	2.8	2.7	2.7
자동차	보험료	74,601	19,334	20,917	20,529	18,358	79,138	18,939
	성장률	14.8	8.3	7.5	6.5	1.9	6.1	-2.0
	구성비	39.9	39.1	40.7	37.4	36.7	38.4	37.0
보 증	보험료	7,156	2,184	2,235	2,413	2,530	9,362	2,423
	성장률	18.9	40.0	28.1	27.2	29.5	30.8	11.0
	구성비	3.8	4.4	4.3	4.4	5.1	4.5	4.7
특 종	보험료	13,876	4,302	4,319	4,641	3,472	16,734	4,546
	성장률	29.7	24.5	27.2	18.5	11.6	20.6	5.7
	구성비	7.4	8.7	8.4	8.4	6.9	8.1	8.9
해외 원보험	보험료	502	144	121	146	153	564	137
	성장률	13.8	7.9	-2.1	63.8	-1.8	12.3	-4.6
	구성비	0.3	0.3	0.2	0.3	0.3	0.3	0.3
장 기	보험료	72,882	19,302	19,707	20,342	20,783	80,134	20,871
	성장률	5.0	11.6	11.0	9.6	7.8	10.0	8.1
	구성비	39.0	39.0	38.3	37.0	41.5	38.9	40.8
개 인 연 금	보험료	6,678	1,661	1,684	1,701	1,740	6,786	1,704
	성장률	8.5	-0.4	0.4	1.7	4.8	1.6	2.6
	구성비	3.6	3.4	3.3	3.1	3.5	3.3	3.3
퇴 직 보 험	보험료	2,865	258	282	2,982	879	4,401	322
	성장률	-25.1	-12.9	38.9	50.7	127.3	53.6	24.7
	구성비	1.5	0.5	0.5	5.4	1.8	2.1	0.6
계	보험료	186,887	49,494	51,409	54,958	50,083	205,944	51,163
	성장률	10.8	12.2	10.9	10.5	7.4	10.2	3.4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1	FY2002				FY2001
		4/ 4	1/ 4	2/ 4	3/ 4	4/ 4	4/ 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1.1	41.7	46.9	57.0	54.3	62.7
	사업비율	54.2	53.6	46.5	48.7	51.4	48.4
	합산비율	105.3	95.4	93.4	105.7	105.6	111.1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46.0	37.4	49.5	53.4	51.6	45.7
	사업비율	34.0	30.9	33.8	33.1	32.7	35.0
	합산비율	80.0	68.3	83.3	86.5	84.4	80.7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67.6	62.8	64.7	66.9	68.4	72.9
	사업비율	32.6	30.5	31.9	32.3	32.2	29.7
	합산비율	100.2	93.3	96.6	99.2	100.6	102.7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208.3	38.6	42.4	77.7	42.0	33.8
	사업비율	11.3	7.5	10.7	-19.0	7.0	5.6
	합산비율	219.6	46.1	53.1	58.7	49.1	39.4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3.8	49.5	46.0	41.4	47.5	43.1
	사업비율	24.0	26.1	17.6	19.8	23.6	25.1
	합산비율	77.8	75.6	63.6	61.3	71.1	68.2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57.8	52.4	53.6	54.5	50.4	46.5
	사업비율	54.6	63.1	59.1	56.8	53.0	54.1
	합산비율	112.4	115.5	112.7	111.1	103.4	100.6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4.4	81.6	81.4	81.4	81.5	80.9
	사업비율	21.5	21.9	22.1	22.2	21.7	22.3
	합산비율	106.0	103.5	103.5	103.6	103.2	103.2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7.8	113.3	113.7	114.4	118.7	114.6
	사업비율	10.8	10.9	11.2	11.0	11.2	11.0
	합산비율	129.6	124.2	124.9	125.4	129.9	125.6
전 체	경과손해율	80.8	70.7	71.1	73.5	72.9	73.7
	사업비율	26.0	25.1	25.3	24.4	25.5	24.7
	합산비율	106.8	95.8	96.4	97.9	98.4	98.4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97-2	남북 경협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보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헌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랜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외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박홍민, 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신동현,배윤희, 2002. 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연구조사자료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욱, 차일권, 1998.2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 심사(Underwriting)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 정책연구자료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연구논문집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회남, 2002.4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 5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영문발간문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Hokyung Kim, Sangho Park, 1995.5.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CEO Report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 김재현, 2000.10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2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6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7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7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8

정기간행물

■ 월간

○ 보험통계월보

■ 계간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table>
<tr><th>구분
내용</th><th>법인회원</th><th>특별회원</th><th>개인회원</th><th>연속간행물 구독회원</th></tr>
<tr><td>연회비</td><td>₩ 300,000원</td><td>₩ 150,000원</td><td>₩ 150,000원</td><td>간행물별로 다름</td></tr>
<tr><td rowspan="2">제공자료</td><td colspan="2">-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td><td>-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td><td rowspan="2">- 간행물별 년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 4회 ₩ 30,000)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 보험동향
(계간 ₩ 20,000)</td></tr>
<tr><td colspan="2">-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 보험통계연보
- 보험통계월보
- 영문발간자료</td><td>-</td></tr>
</table>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04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 영광서적

보험동향 2003년 가을호(통권 27호)

2003年 10月 1日 第1刷發行

發行人 임 재 영
編輯人 오 영 수

發行處 保 險 開 發 院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35-4
登 錄 1997. 7. 15. (바-2873)
代表電話 (02) 368-4000

印刷所 대 화 인 쇄
電 話 (02) 2265-1330

定價 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88, 368-4183)으로 하여 주십시오.